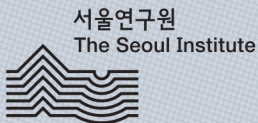


2015-CR-04-02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5-02

서울 시민의 꿈과 삶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옥라



서울 시민의 꿈과
삶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조옥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진

이아라	서강대학교 석사과정
이재희	서강대학교 4년
임현지	서강대학교 4년
김한결	서강대학교 3년
성한솔	서강대학교 3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많은 청년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믿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꿈다운 꿈’ 꾸는 청년 없어

보통명사로서 ‘청년층’은 없다

우리 연구는 현재 서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꿈꾸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기성세대 중심의 청년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청년 내부의 목소리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했다. 첫째, 청년층의 ‘한 만큼 대우받는다’는 추상적인 기준의 암묵적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마다 가지는 ‘한 만큼’과 ‘대우’의 기준을 살피고, 정당한 보상체계의 존재를 찾아 청년들이 ‘한 만큼’과 ‘대우’를 어떻게 연결 짓고 현실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대처 양식을 보고자 하였다. 25명의 청년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그에 대응하는 전략과 행동과 관련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 청년들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사회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지 들여다보았다. 청년들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소외된 타자의 배제로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수의 청년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믿음이 없는 청년들도 다수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꿈다운 꿈을 꾸는 청년들은 없었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들 청년은 자신의 한계만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꿈과 믿음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제한하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가 부과한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있었다. 사회가 부과한 한계를 청년들이 당연히 수용하면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경쟁에 의한 낙오도 당연한 사회의 규칙으로 인식한다. 수능평가식의 평가체제가 기준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과의 경쟁에 몰입하게 되는 기제가 되었다. 경쟁의 결과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드러난다. 청년들은 소수자정책에 대해 선별적 정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은다.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는 청년들은 정책적 수혜를 받아야 하는 소수자에게도 노력이라는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의 한계 극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 삶의 욕망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자신이 포함된 내부 집단끼리의 사회 교류를 하고, 소비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집단끼리의 교류는 집단 간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는 청년층 간 유대감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결국 청년 모두가 꿈꾸는 공동의 꿈이 존재하지 않고, (연대에 필요한 꿈이 없기에) 청년세대의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들 간 연대가 없는 이 사회는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한다.

목차

01 서론	2
1_연구 목적 및 의의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_연구대상자 특성	13
0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	22
03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28
1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청년층	28
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청년층	49
04 청년층의 소비	64
1_관계맺기형 소비	64
2_계층적 소비	67
3_생산적 소비	70
4_억압된 소비	72

05	정당한 사회와 정책	76
1_	정당한 사회와 정책의 관련성을 찾는 목적	76
2_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	83
3_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는 유형	89
4_	노력이 수반된 선별적 정책 지지	94
06	결론 : 청년들의 꿈, 좌절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	96
07	정책 제안	102
1_	자아탐구 지원을 담당할 전문적 · 종합적인 공간의 구축	104
2_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 마련	104
3_	감성에 호소하는 소수자 정책 홍보방법의 개편	105
4_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할 공적 채널의 확대	105
	참고문헌	107

표

[표 1-1] 심층면담 질문지	9
[표 1-2] 면담 대상자 특성	14
[표 1-3] 면담대상자의 유형 정리	18

그림

[그림 1-1] 연구 진행과정	4
[그림 1-2] 분석의 틀	11
[그림 7-1] 정책 제안	103

01

서론

- 1_연구 목적 및 의의
-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_연구대상자 특성

01 | 서론

1_연구 목적 및 의의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체제 속에서 무한경쟁은 미덕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청년들에게 가능한 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년들의 꿈에 대한 생각은 2015년 봄 학기 서강대 사회학과 ‘문화현장연구실습’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공동 연구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찾아 연구를 하자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청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들 대부분은 기성세대에 의해 생산된 것이었다. 자기계발서를 내려놓고 짚돌을 들라는 축구에서부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식의 힐링 담론, 청년의 열정과 패기를 고취시키는 창조적 수사들과 삼포, 오포 세대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청년 좌절 담론까지 청년층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했다. 기존의 청년세대 담론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의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청년층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담론이 실제 청년층의 모습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여 이 연구는 청년 자신에 의해 수행되는 청년층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자들이 동년배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하여 현재 서울시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들의 꿈을 생생한 목소리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연구팀이 청년들의 삶과 꿈을 바라볼 렌즈, 즉 화두로 잡은 주제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였다. 사전조사와 내부 논의를 통해 연구팀은 현재 청년들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러한 꿈은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는 ‘하는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인 청년세대는 어쩌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 현재의 청년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아래 빛나는 미래를 꿈꾸어 온 세대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례없는 취업난과 불안정한 환경에 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놓인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한

만큼 대우받는’ 정당한 사회라는 꿈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 만큼 대우받는다’는 추상적인 기준에 대한 청년층의 암묵적인 합의가 무엇인지 우선 살펴려고 하였다. 개인마다 ‘한 만큼’과 ‘대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수렴되는 공통의 보상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청년들이 가정하는 정당한 보상체계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한 만큼’과 ‘대우’를 어떻게 연결짓고 있고 현실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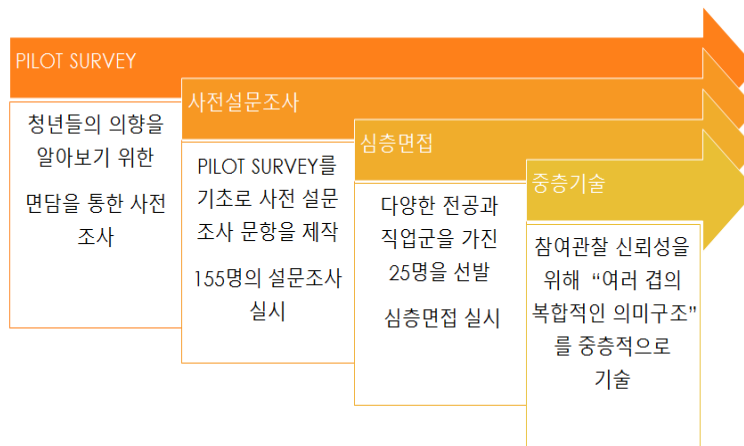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들이 불안정한 현실에 대처하는 양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놓인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어떤 전략과 행동으로 대응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팀은 25명의 청년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비관적인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결혼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 등을 포기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소비적 생활에 눈을 돌리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짚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 한 만큼 대우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동시에 타자에 대한 대우의 주체이다. 청년들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사회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지 들으려고 하였다. 소위 ‘금수저’라는 용어로 불리는 특권계층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 간 서열짓기와 타자화, 배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자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에 관한 정책적 입장을 질문하여, ‘역차별’의식으로 나타나는 청년들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민음이 소외된 타자의 배제로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양적 자료를 사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인간의 내면, 감정, 관념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행위의 강력한 요인(윤택림, 2004:16)이지만 이를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를 객관화한 수치로 만들어진 양적 자료를 사용하는 양적방법보다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여 분석하는 연구방식인 질적 연구 방법(윤택림, 2004:18)은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수치화할 수 없는 특수한 문화적 의미 파악을 위해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므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4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일럿 서베이(PILOT SURVEY), 두 번째 사전설문조사, 세 번째 심층면접, 네 번째 중층기술의 순서로 진행했다. 각 단계의 세부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진행과정

1) PILOT SURVEY(예비조사)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이 연구에서의 청년은 20대만을 지칭)들의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PILOT SURVEY(이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의 꿈과 꿈의 실현을 위한 사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준비하여 구술의 형식으로 짧은 설문을 진행하였다. 강남, 홍대, 신촌 지역에서 25명의 청년들에게 구술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 꿈, 미래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청년들의 경제적 환경, 꿈, 사회의 정당성과 정책에 대한 시각이었다. 경제적 환경에 관한 질문은 청년들의 용돈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꿈에 관한 질문은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끝으로 사회 정당성과 정책 관련 질문은 사회가 정당한지, 여성 및 소수자 우대가 정당한지, 여성정책이 정당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예비조사의 질문을 준비하며 연구진이 세웠던 가설은 용돈의 차이가 계층을 반영하고, 용돈의 액수에 따라 꿈과 사회 정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계층에 상관없이 용돈은 30~50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고가의 물품이나 용돈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충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용돈’이라는 변수는 계층과 청년들의 가치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꿈에 대한 질문의 결과 청년들이 ‘꿈’의 의미를 삶에 대한 가치보다는 경제적 조건과 직업 활동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25명의 응답자 중 17명이 직업과 경제적 조건에 관련된 꿈을 언급하였다면, 8명은 좋은 아빠, 행복, 여유,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질과 관련된 응답을 하였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은 타인에게는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관련 질문에서는 현재 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믿음을 가지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선호도 관련 질문에서 19명이 그러한 사회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믿음을 가진 응답자는 적은 수에 불과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명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결국 정당한 사회다.'라는 인식이 응답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응답자들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관련 질문에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연구진에게 되물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므로,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정의하고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응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예비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정의를 묻지 않고, 심층면담에서 진행한 결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의 정의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여성과 소수자 정책의 정당함에 관한 질문에 대해 25명 중 9명이 적극적 지지, 4명이 적극적 반대, 12명이 무응답 내지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앞의 문항을 변형하여 여성정책의 정당함에 관한 질문도 하였다. 두 질문을 통해, 청년들이 여성을 소수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적대감을 가진 상대로 인식하는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질문 모두 같은 응답을 얻었다. 예비조사가 구술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짧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심층적인 인식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비조사는 청년들의 의향 파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심층면담에서 이를 보완하였다.

2) 인터넷 사전 설문조사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단계인 (인터넷) 사전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었다.

사전 설문조사의 목적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청년층의 전반적인 현재와 미래 인식, 꿈과 미래 준비, 문화로서의 소비유형, 정책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를 얻어 심층면담의 질문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상에서 2015년 5월 22일부터 26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55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임한 155명 중 90%에 해당하는

140명은 학생이었으며 상경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학생이 63%였다. 현재 사회를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가 68.4%(106명)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미래에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년은 67.9%(72명)였다.

청년층의 문화 이해를 위한 지출액과 소비내용에 관한 문항에는 과반수의 청년이 30~50만 원 사이의 지출을 하고 쇼핑에 집중하는 소비를 한다고 응답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도덕 감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저소득과 장애인정책에는 90%대의 절대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나,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정책은 6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여성, 다문화 정책에서 반대 성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만족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객관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경험과 현상을 거쳐 창출되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알기에는 쉽지 않았다. 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상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3) 심층면접(면담)

세 번째 단계인 심층면접(이하 면담)은 25명의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학생과 비대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재 몸담고 있는 소속에 따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대학생이었고, 연구 장소가 신촌을 중심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대학생의 비율을 가장 높게 분배하였다. 대학생은 15명, 전문대생 1명이었고, 비대학생은 취업준비생 2명, 고시생 4명, 직장인 3명으로 구성하였다(비대학생에 속한 취업준비생과 고시생은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구직자의 상태이다). 면담자는 주위의 지인과 소개를 받아서 선정하였다. 면접은 피면담자 1명당 평균 3회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기본 2시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심층면접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면담자의 라포(rapport)형성이 가장 중요하

다. 라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감정이입, 상호 신뢰, 이해, 공감대, 우정 등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친밀도를 의미한다(윤택림, 2004:139).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면담자와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라포가 쉽게 형성되었다. 또한 면담자가 연구자의 지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라포 형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양질의 면접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면식이 없는 면담자는 라포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인인 면담자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면담은 그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면담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면담자에게 허락을 받아 녹음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 음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게 메모를 하였다. 그 당시의 녹취 상황도 메모로 남겨두어, 분위기와 어투, 대화 뉘앙스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남겨 두었다. 무형자료인 녹음된 파일을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형 자료인 문서로 작성하여 자료화 하였다.

심층면담은 5명의 연구자가 5명의 면담대상자를 담당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의 틀이 필요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1)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관한 질문, 2)소비와 문화생활에 관한 질문, 3)정책과 관련한 질문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틀을 설정하였다. 큰 유형의 질문을 뼈대로 하여 면담자의 응답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으로 질문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면담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1] 심층면담 질문지

질문 유형	세부 질문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Q1.꿈이 무엇이고, 꿈을 위해 들이는 노력?
	Q2.노력을 통해 이룬 성공 경험이나, 노력했으나 좌절, 실패한 경험?
	Q3.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Q4.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현재 혹은 미래)
	Q5.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정당한 사회인가?
소비· 문화생활	Q1.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엇을 하는가?
	Q2.취미생활
	Q3.주로 소비를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Q4.(본인의 기준에서)작은 사치를 한다면 어떤 분야에 소비하는가?
정책	Q1.소수자정책에 대한 기본 생각과 이유? (저소득, 장애인, 여성, 다문화, 성소수)
	Q2.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면담자 개인에게 맞춘 질문을 통하여, 면담자의 가능한 한 많은 과거 경험과 현재 생각을 답변으로 이끌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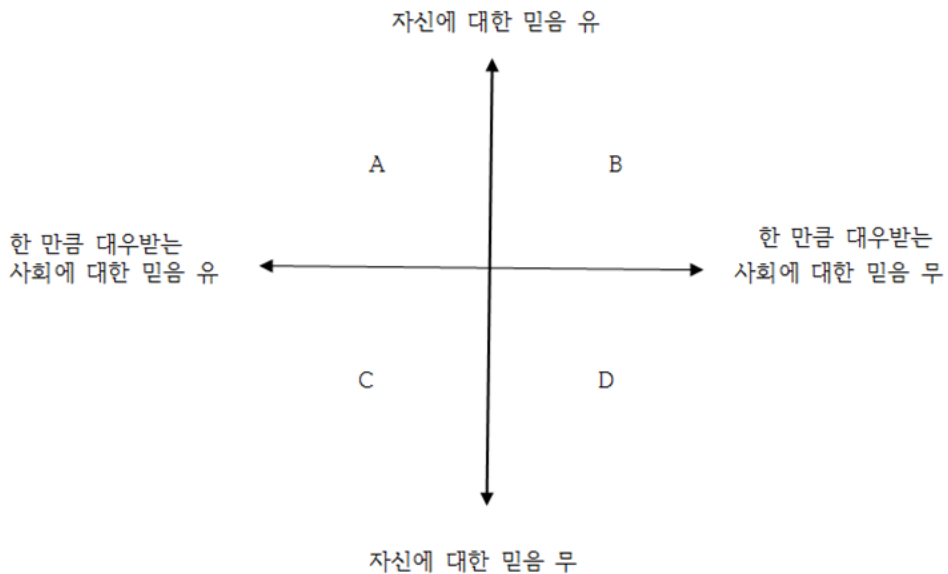
면담이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면담자가 있었던 반면, 마지막 면담까지 말을 아꼈던 면담자도 존재했다.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면담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구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면담자는 면담을 마치면서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가 친구보다 더 자신(면담자)을 많이 알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청년들 주위에는 친구들과 SNS와 같은 소통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와 꿈, 삶과 같은 속 깊은 이야기는 정작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4) 중층기술

마지막 단계는 면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를 모아 공통점을 유추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 해석하여 기술하는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이다.

먼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얻어진 복합적인 상황의 의미구조를 연구자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기서의 분석은 “사회적 근거와 중요성을 부여”(클리퍼드 기어츠, 2009: 17)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적·배경적 이해가 요구된다. 해석의 과정에서는 관계와 구조, 상징, 체계가 연구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하여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게 해준다(클리퍼드 기어츠, 2009:27). 중층기술을 이용한 심층면접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들의 관계를 해석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면담한 면담자들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층과 없는 층으로 유형화되고 믿음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그룹 내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좁혀지지 않았다. 이유는 청년들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연구자가 예측한 것처럼 사회가 한 만큼을 받을 수 있게 할 보장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개인의 노력 결과를 믿는 경우도 사회를 믿는 것으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믿음의 유무라는 틀 안에, 개인의 믿음이 확고한 층과 아닌 층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분석의 틀

위와 같은 분석틀에 따르면 청년들의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회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는 A유형,
 둘째, 사회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B유형,
 셋째,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은 없으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C유형,
 넷째,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 D유형이 그것이다.

25명의 심층면담 면담자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대입해 보았다. 믿음의 강도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강한 불신의 표출부터 ‘아닌 것 같다’는 의견까지를 포함하였다. 유형에 대한 판단은 면담자의 긍정이나 부정의 한 문장에 연연하여 구분한 것이 아니라, 면담자와의 전체적인 면담내용, 분위기, 문장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응답자 중 A유형은 12명, B유형은 6명, C유형은 7명이었고, D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유형분석을 통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다시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의 언어를 통해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각 응답자의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고, 연구자들 간의 토론을 계속하여 유형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을 진행하며 수집되고, 해석·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청년층의 현재, 미래 원하는 삶, 가치관에 대해 기술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_연구대상자 특성

심층면담을 통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신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0대 청년 25명을 선정하여, 5명의 연구자가 각각 5명의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여 진행했다. 연구진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삶에 관한 태도는 개인이 처한 직업적 환경, 전공,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심층 면담 대상자를 선정 시 이러한 변수를 반영하여 다양한 면담대상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처한 직업적 환경에 따라 20대 청년들이 가지는 직업적 환경을 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여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으로 나누었다. 5가지 직업군으로 나눈 직업적 환경의 비율은 인터넷으로 진행한 사전설문조사의 응답자의 비율에 맞추었다. 사전설문조사의 응답자 155명 중 140명(93%)이 대학생이었다. 직장인, 고시생, 취업준비생이 뒤를 이었다. 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생을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17명)로 설정하고, 직장인,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의 비율은 비슷하게 설정했다. 학생 면담 대상자들의 전공도 사전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사전설문조사의 응답자 비율은 상경계열과 인문사회 응답자가 30%씩, 공과계열과 예술계, 자연계가 그 뒤를 이었다. 면담 대상자의 전공도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누었다.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연구자들의 지인 혹은 주변인의 소개를 받았다. 면담 대상자당 평균 3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면담당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표 1-2] 면담 대상자 특성¹⁾

직업	전공	성별	비고
대학생	공대	남(1)	
	공대	남(2)	
	공대	여(1)	
	공대	여(2)	
	상경	남(1)	
	상경	남(2)	
	상경	여(1)	
	인문사회	남(1)	
	인문사회	남(2)	
	인문사회	여(1)	
	인문사회	여(2)	여대 재학
	인문사회	여(3)	
	인문사회	여(4)	비 신촌 소재 대학 재학
	인문사회	여(5)	비 신촌 소재 여대 재학
	예술	여	비 신촌 소재 대학 재학
	자연	남	비 신촌 소재 대학 재학
고시생	철도	남	비 신촌 전문대학 재학, 래퍼활동
	상경	남	CPA 준비
	자연	여(1)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준비
취업준비생	패션디자인	여(2)	법원직 공무원 준비, 전문대 졸
	경영	남(1)	일반기업 준비
직장인	인문사회	남(2)	언론계 준비
	미용	남(1)	미용사, 미용고 졸
	전기	남(2)	태양열 관련 소기업(현재 퇴사), 전문대 졸
	인문사회	여	비정규직 교직원

¹⁾ 분석과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각 참여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붙였다. 직업과 성별(남, 여)을 조합하고, 학생은 전공과 성별조합으로 나타내었다. 성별이 겹칠 경우는 아라비아숫자로 차별을 두었다.

25명의 면담자는 남성 13명,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생 17명, 취업 준비생 2명, 고시생 3명(전문대 졸업생 포함), 직장인 3명이다. 학생신분 청년들의 전공은 공대 4명, 인문사회대 7명, 상경대 4명, 자연대 1명, 예술대 1명, 철도 1명이다.

1) 직업별 면담자 특성

(1) 학생 - 신춘소재 대학 학생 중심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이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신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 면담자 중 70%를 차지하는 12명이 신춘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비 신춘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면담자는 인문사회여(4), 인문사회여(5), 자연남, 철도대학(전문대)을 다니면서 홍대에서 래퍼로 활동하는 철도남(1), 예술전문대 학교를 다니는 예술여 등 총 5명이다.

대학생 신분의 면담자들은 다양한 전공만큼,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층을 구성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용돈을 충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혹은 용돈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경험은 면담자들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대의 면담자들은 장래 대기업으로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본인 스스로 이공계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보다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하여 취업관련 스트레스는 적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전공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상경계열의 면담자들은 부모님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경영남2)가 있었으나, 국가와 사회의 미래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국가에 막연한 지지와 믿음을 보이는 경영남1도 있었다.

전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인문사회계열의 면담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층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가치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층위 중상에 위치하는 면담자들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혼을 설정한 인문사회여1, 수능점수에 근거한 소위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인문사회여3, 부모님의 성에 차지 않는 딸이었지만 대학에 와서 관심 분야를 찾고, 그 방면으로 꿈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인문사회여 2, 수능실패 후 떠난 유학에서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와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인문사회여4 등이 있다. 이 층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적 층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또한 래퍼라는 색다른 도전을 하는 철도남은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취업에 안정적인 대학에 기대고 있었다. 경제적 층위 중하에 위치하는 인문사회계열 면담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배경(가족의 경제력)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자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다른 전공의 면담자로는 예술전문대학교에서 영상예술을 배우며 입봉(영화)을 꿈꾸는 예술여와 의대입시 실패로 수학과에 입학하여 전문금융인을 꿈꾸는 자연남이 있다.

(2) 취업준비생(취준생)

이 연구의 취준생은 취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 선정하였다. 취준남1은 무역마케터가 꿈이지만 취업난 속에서 어떤 회사든 가리지 않고 원서를 쓰고 있는 중이다. 취준남2는 대학 졸업 후, 군 장교로 근무하고 제대하여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3) 고시준비생(고시생)

고시생 면접 대상자들은 다양한 고시를 준비한다. 고시남1은 CPA(회계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군대 제대 후, 1년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여 CPA 1차에 합격하고, 현재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고시여1은 전문대 졸업 후, 법원직 공무원

6년째 준비하는 장수생이다. 고시여2는 의사인 부모님의 조언으로 의학전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4) 직장인

미용남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 평소 흥미가 있었던 미용고로 전학을 간 것을 계기로 미용업에 발을 들였다. 예술미용을 배우기 위한 학원비를 벌고, 원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류미용이 유행인 ‘중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소기업남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태양광 설계 및 시공을 하는 소기업에 근무하였다. 처음 면접이 진행될 때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를 느끼고 있지만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어 이직과 사직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마지막 면접에서는 결국 회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하였다. 직장여는 계약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비정규직 교직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계속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나 부모님의 등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2) 연구 분석틀과 연구대상자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그림 2]의 분석틀을 가지고 면담대상자 25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대입해 보았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분석틀의 4가지 유형 중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분석틀에 속하였다.

[표 1-3] 면담대상자의 유형 정리

유형	세부유형	사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유	자신에 대한 믿음 유	공대남1, 공대여1, 인문사회여1, 경영남1, 공대여2, 공대여2, 고사남1, 취준남1, 철도남, 자연남, 경영남2, 인문사회여4, 고시여1
	자신에 대한 믿음 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무	자신에 대한 믿음 유	미용남, 인문사회남2, 인문사회여5, 공대남2, 인문사회여2, 예술여, 취준남2
	자신에 대한 믿음 무	경영여1, 인문사회남1, 고시여2, 소기업남, 인문사회여3, 직장여

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없으면서, 막연히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면담자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대 청년들로 확대 해석할 경우,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1)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믿음 유, 자신에 대한 믿음 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의 면담자가 1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유형은 경제적 계층적으로 중상에 속하는 면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배경을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포함시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킨다.

(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무, 자신에 대한 믿음 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유형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자신과 환경의 분리를 통해 부모와 같은 경제적 환경이 자신의 꿈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몰두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노력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3)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무, 자신에 대한 믿음 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은 유형은 자신의 꿈보다 높은 주위의 기대에 좌절하거나, 선택을 포기한다. 자신에 믿음이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 하지만 당연히 이를 수 없는 꿈이라고 상정하고, 그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 혹은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해,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라고 상정한다.

0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

02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

연구팀은 심층면접 과정에서 각 응답자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가 '한 만큼 대우해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청년들의 '한 만큼'이 무엇을 의미하고 '대우'라는 말에서 어떤 사회적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했다.

응답한 청년들은 '한 만큼에 대한 대우받는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토의될 수 있겠다.

1) '한 만큼'을 노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층이 있다. 이 청년들에게 한 만큼은 개인이 투입한 정성적인 노력의 합으로 이해되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왜냐하면 투입한 노력이 아니라 산출된 결과를 대우하기 때문이다. 합격선이 70점인 시험에서 69점은 결과적으로 0점과 마찬가지로이다. 69점을 받기 위한 노력은 대우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2) '한 만큼'을 결과로 이해하는 층이 존재한다. 이 청년들에게 한 만큼은 개인이 노력과 능력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이다. 개인마다 적성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해도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력에 대한 대우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객관적인 성취로서의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결과로서의 한 만큼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열정페이'식 착취, 악덕 고용주의 '갑질'이 청년들의 결과물을 '후려치'고 있기 때문이다.

3) 업무의 내용과 노동시간이 '한 만큼'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층의 청년들은 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청년들이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업무 내용이 같고 같은 시간만큼 일했다면 '한 만큼'이 같으므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과 정규

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 학벌 등 업무 외적인 요소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한 만큼 대우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이다.

4) 학벌을 ‘한 만큼’의 결과로 이해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이들이 보기에 학벌이란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성취한 결과로, 그 자체로 한 만큼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가 학벌에 대해 대우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학벌에 따르는 특권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한 만큼 대우하지 않는 역차별로 생각한다.

이렇듯 청년들이 ‘한 만큼’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양했다. 그러나 다양한 ‘한 만큼’을 ‘대우’와 연결짓는 보상체계를 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청년들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수능시험 체계를 기본 틀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 만큼’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인 청년들은 노력했는데도 수능을 망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 타고난 능력으로 노력한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온 자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원래 원했던 곳은 아닐지라도 ‘괜찮은 대학’에 진학한 자신의 재수 성공 경험, 합격한 자신과 불합격한 친구의 차이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 만큼’과 ‘대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한편에서 수능 시험이 청년들에게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과 사회적 보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지 도식으로 수능시험이라는 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시스템은 노력, 열정, 시간과 돈 등 다양한 가치를 투입하여 정량적인 성적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대학이라는 최종 보상을 결정하는 평가 - 보상 체계이다. 여기에 익숙한 청년들은 정량적인 보상으로서의 ‘대우’를 바랐다. 정서적인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우’로 정량적인 가치가 주어지면 정서적인 인정은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역으로 대학의 네임밸류(이름값)나 번듯한 직업과 같은 정량적 가치를 지녀야만 정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입을 경험한 대다수 청년에게 수능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상체계로 의식에 체

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수능시험 식의 보상체계가 완전히 공정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수험생의 한 만큼과 시험성적은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성적이라는 결과에는 노력한 시간 외에도 타고난 재능과 적성, 그날의 컨디션, 부모로부터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한다. 수험생이라고 다 같은 수험생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지원을 받는 소위 '금수저'가 남들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청년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다. 불만이 있다고 시험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신 유리한 조건에 선 타인의 존재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누군가 더 적은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단 걸 알지만 그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대신 더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앞선 누군가가 50을 노력할 때 나는 80을 노력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돌아오기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태도에는 비록 경쟁 이전의 조건은 불평등할지라도 경쟁 자체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한 만큼에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에 비례하는 결과가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수능식의 보상체계가 최소한 사회의 다른 보상체계보다는 더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느낀다.

서로 다른 조건과 '한 만큼'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모두 이러한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믿고, 반대하지 않았으며 현실에 실현되기를 바랐다. 때문에 연구팀은 수능식의 보상체계를 최소한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합의된 인식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사회에서도 수능시험 식의 보상체계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는 청년들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청년들은 현실 사회에서도 수능시험 식의 ‘한 만큼 대우받는’ 보상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보기에 현실은 각 개인이 한 만큼에 따라 얻은 결과이다. 현실의 빈부격차는 마치 대학 서열과 같이 개인이 노력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보상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이 청년들은 ‘금수저’가 아닌 자신의 조건에서 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른 청년들은 현실에서는 수능식의 최소한의 보상체계조차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이 보는 현실에서 개인은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조건에서 노력한 결과조차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현실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다.

현실의 보상체계를 불신하는 청년 중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 생존을 위협받는지 모르므로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개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들은 반복되는 좌절 경험으로 스스로를 불신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제약 앞에서 목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비록 구체적인 개념에서 ‘한 만큼 대우받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을 그들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보상 시스템’이 현실에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실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여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범주로 연구 대상 청년들을 분리하여 토론하고자 했다.

- (1)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유형
- (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형
- (3)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

각 유형으로 분류한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노력, 기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하며 이들이 사회적 배려를 보여주는 정책에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했다.

03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 1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청년층
- 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청년층

03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1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청년층

1) 사회에 대한 믿음 유지 근거 존재

삶의 대부분을 경쟁하며 살아가는 청년세대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청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포기에 저항하는 것마저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를 신뢰하고 믿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만 그 속에서도 사회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면접자들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형태와 내용은 상이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는 자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이 큰 유형이며, 둘째는 과거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노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에 대한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중시하여 현실과 타협한 유형이다. 각 유형이 어떤 형식으로 사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취약하고 한계를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현실만족형 - 계층 인식이 강한 중산층이 다수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이 큰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이 여유로운 중산층이며 계층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이다. 특히 인문사회여1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상위 계층과 비교하며 설정했으며, 중학생 때부터 계층의 영향력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는 타인을 언급할 때 대기업 부사장 아들, 사법고시 합격생 등 경제적, 직업적 상태와 연관시켜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인문사회여1을 비롯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중산층으로 인식했으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택들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자연대남1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재수를 하고 그 후 학교를 다니면서 의대가 가고 싶다는 이유

로 또 다시 재수를 택했고, 철도남(래퍼) 역시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랩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아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 삶에서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상당한 만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여1를 비롯한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가정에 상당한 만족감을 지니고 최소한 그만큼의 가정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는 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뤄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자신이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나름의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의 능력만을 집중해서 볼 때 낙담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을’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준거하고 있는 삶의 기준은 현재 자신의 삶이자 부모님이 이뤄낸 경제력을 뜻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달리 최악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기를 꺼렸다. 현재의 만족감이나 경제적인 안정감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예상할 때도 막연한 안정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미래 생활에 대한 마지노선을 중산층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막연한 안정감은 긍정성이 부각된다는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유형에서는 좌절의 순간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이 이 유형에서는 어떠한 좌절이나 어려움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영남1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으며,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취감과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좌절의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어 좌절이 오는 상황에 대하여 그 반응은 무덤덤했으며, 대부분이 자거나 잠깐 쉬면 된다는 식의 대처방안 역시 일상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계 짓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영남¹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배제를 시키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자신이 경험한 범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사회는 다시 말해 그들이 여태껏 대우받고 자랐던 그들만의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다. 인문사회여¹은 자신에게 사회보다도 연애사나 남녀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반응과 경영남¹이나 취준남¹처럼 아직 진짜 사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경험한 사회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즉, 사회를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식의 무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이들은 살아오면서 어떠한 심각한 고난이나 좌절을 겪은 적이 없으며,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는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긍정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수준이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게다가 현재의 경제적 수준도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불안감에서 야기되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회가 마땅히 정당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희망을 투사한 것일 수도 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 면담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막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가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논리적 이유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막연한 기대에서 믿음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만족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현재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에 대한 만족 역시도 당연한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아마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성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좌절의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심지어는 좌절의 상황마저도 별 것 아닌 것으로 무심하게 넘어가는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에 대한 불만도 없는 것이다. 다만 사회에 대한 인식이 넓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영역, 자신이 경험한 영역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자수성가형 - 노력으로 경제적 상황 극복한 중하층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닌 두 번째 유형에는 노력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한 중하층 사람들이 해당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상황이 경제적으로 약자였다고 생각했으나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극복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자신의 힘으로 이를 극복을 했거나,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었다. 공대여2는 과거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좌절을 극복했으며, 공대여1은 과거 자기 능력에 의해 영재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무리 없이 진학한 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혀나갔다. 그들의 이런 경험들은 노력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들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성취한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다. 특히나 이들은 경제적 상황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수준은 불평등한 현실이라기보다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며 이 사회 안에서 이러한 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때문에 현재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불평등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온 동시에 노력에 의한 대가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한 면담자들이 하나같이 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공대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들이 모두 공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취감의 정도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이 사회 내에서 제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회의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모두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기에 학비 부담이 없다. 물론 그 범위가 공

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 가능하게 만들어주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자기 상태가 미래 중산층의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담자들은 모두 상위권 공대 출신이며, 이 정도의 학업수준이면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떻게 생활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공대가 문과보다 월등히 안정적인 취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각 면담자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들의 예측 속에는 못해도 대기업의 연구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미래에는 과거에 이들이 경험했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서 이를 능가하는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유형의 대부분은 과거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공대남1이 원하는 수준은 연봉 최소 5,000만 원, 공대여1이 원하는 경제적 수준은 월 500만 원, 공대여2가 원하는 경제적 수준은 월 400~5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이들이 추구하는 삶 역시도 중산층 수준을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나 공대여2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수준에 의한 과거 경험들 때문에 중산층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며, 미래에 자신이 이러한 계층적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했다.

이처럼 자신의 노력에 의해 불리했던 조건들을 극복하고 목표에 조금씩 도달하는 자수성가유형에 속하는 면담자들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대남1은 노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몸 멀쩡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들을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라고 평가했으며, 공대여2는 '약자인데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거나 의욕도 없으면 불쌍하고 안쓰럽긴 한데, 의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관점에서는 용납이 안됐어요.'라면서 노력하지 않는 자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들이 자신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라 믿고 있으며, 다른 이들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노력하지 않고 보상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컸다. 나아가 공대여2는 노력한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자신이 노력해서 상위권 대학에 왔지만 이력서에서 대학명을 빼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자수성가형의 주된 특징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노력’이 핵심을 이룬다. 영향력이 가장 큰 조건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한 이 유형은 이를 계기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상황을 사회와 무관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 사회에 대해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만족이라기보다는 불만이 없기에 만족할 수 있는 편에 가깝다. 이들에게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노력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애초에 노력을 중시하기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한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현실타협형 - 현실 한계 인식, 비판의식을 현실타협으로 승화

현실탈협형은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있었지만 이를 접고 현실과 타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실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현실비판의식을 애써 접었다. 고시남1은 ‘저는 사실 이상도 안 느껴져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며 과거에 자신이 이상을 지녔던 사람이었음을 회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사회가 지닌 모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시남1은 노력과 혜택이 적당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산업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노력에 따른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나친 결과 위주의 사고를 함으로써 노력을 통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충분히 많은 사회 운동가가 현실 사회의 불공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이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하며 자신의 논리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노력을 하면 대우를 해주지만 그 노력의 수준이 지나치게 크다는 식의 여지를 남겨둘 뿐이다. 이들도 자수성가형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대우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회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이 눈에 띄게 도드라졌으며, 예측 가능한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회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인식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의 걱정이 크게 다가왔으며, 이상을 지닌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지닌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동일시했다. 자신이 지닌 것을 포기한다고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 대한 불만족이 오히려 이러한 불만족을 지닐 수 없게 굴복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현실과 타협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므로 현실타협을 통해 가치 충돌 없이 만족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거에 꿈꿨던 이상에 대해 포기했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현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일들을 회상할 때마다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기대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것도 현실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하는 내내 사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 현실로 돌아와서는 현실의 정당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전체 사회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함을 애써 눈감으려는 자기 정당화로 보이기도 한다.

현실탈협형의 사람들은 현실만족형이나 자수성가형보다 사회현상이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유형보다도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 역시 강하다. 이에 따르면 현실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도 강한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오히려 좌절된 이상 때문에 현실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4) 공통적 특징 -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존재

사회를 믿는 유형에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 여부가 사회에 대한 믿음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삶의 안정성을 가지게 하는 기제 유무가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컸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 외의 것이 존재했다. 이는 경영남2와 인문사회여4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비교적 적었지만 미래의 삶에 부모의 재력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기대가 있었다. 이처럼 안정성을 담보하는 부모의 재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범위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범위로 한정되었으며, 그 외의 현상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지녔다. 이는 후반부에 논의할 정책에 대한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타인의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유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과 긍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형 속에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삶을 꾸려갈 능력이 확연히 보이고 그것을 믿는 부류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적 위기의 순간들을 겪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류가 속해 있다. 이들 모두는 낙락으로 떨어지는 실패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자신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계의 능력을 지녔거나 자신의 부모가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패를 생각하더라도 자신들을 만족시킬만한 마지노선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관련하여 고시남1은 자신이 자신의 부모에게 아낌없이 지원받은 것처럼 나중에 자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애초에 실패라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긍정성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좌절을 좌절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류에서 큰 좌절로 여기던 경제적 상황이나 원하는 대학의 진학 실패 등은 이 부류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한다. 경영남1은 재수의 경험을 통해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한 만큼 보상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대여2는 좌절을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을 끝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진정한 좌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돌아가든, 더 노력을 해서 뛰어넘든 많은 방법을 써서 이를 극복했다고 한다. 이는 좌절을 정의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좌절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취준남1도 자신이 가고 싶던 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좌절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통해 잘 극복했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좌절의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대체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권력이나 부처럼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강력한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잃지 않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다. 이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삶 및 여러 기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공대남1은 도전을 할수록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진다는 인식 때문에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착하고 싶어 한다. 인문사회여1은 기존에는 사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길 바랬지만 그것보다도 복지가 좋고 안정적인 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공대여2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삶이 매우 안정 지향적이었으며 미래에도 안전한 루트를 밟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외에도 고시남1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녔으며, 경영남2나 인문사회여4는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성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경제적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철도남(래퍼)은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면담자는 랩 분야에 열정을 보이면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획일화된 가치를 탈피하려는 도전정신을 지닌 사람이다.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랩분야에 도전

한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다. 이렇게 서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래퍼는 동시에 졸업하기만 하면 취직은 보장되는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래퍼로서의 만족보다는 학교생활의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났으며, 사회생활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측면을 보였다. 철도남(래퍼)은 도전적인 성향을 일부 지니고 있지만 이는 그 외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도전 지향성과 안정 지향성이 모두 존재하지만 안정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도전 지향성이 발현됐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노력에 따른 보상체제를 엄격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의 노력을 보상에 대한 필수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주의의 평가를 정당화한다. 공대여1은 노력을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노력으로 판단하고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노력이 발휘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적 요건이나 여러 요소를 배제한 채 노력과 결과라는 두 가지 변수에만 집중한 탓이다.

이러한 사고를 지닌 대상자들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노력을 강조했으며, 실제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문사회여1은 영어, 재무, 학점관리, 토플, 토익, 중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남1은 주1회 국제정치에 관한 스터디 모임과 연구소에서 정책관련 토론에 참가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공대여2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꾸준히 활동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뿌듯해했으며, 고시남1도 자신이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기에 지금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 취준남1도 현재 무역 관리자, 국제 무역사, 유통관리사 등 자신이 집중하는 분야의 많은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유형의 대부분 사람이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주의적 태도가 어느 정도 타인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받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다. 한편, 철저한 결과 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경영남1은 정확하게 ‘노력한 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능 대박이라는 말

을 예로 들으면서 이런 말은 사전에 없다고 단정지었다. 수능 대박 현상은 사실상 그 결과를 이끌만한 보이지 않는 노력의 요소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유형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철저한 결과 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결과에 따른 보상 체제에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2) 믿음의 내용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으로부터의 믿음, 좌절의 극복으로부터의 믿음, 현실과의 타협을 통한 믿음 등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계기를 통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이 믿는 것이 상당히 성취가능성이 높은 '작은 욕망'이라는 점,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 예측 가능하고 평가가 구체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점,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1) 무한한 가능성이 제거된, 한계 지어진 작은 욕망

먼저 믿음의 내용 중 초점을 가장 맞추어야 할 특징은 한계 지어진 작은 욕망이라는 사실이다. 기성세대들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청년층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이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을 지닌 청년들이라고 간주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이 유형의 청년층은 사회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무한한 가능성 및 잠재성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항상 절대적 권력층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영남1은 자신이 현실에서 사는 약자 같다고 느꼈으며, 공대여2는 갑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권력층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이 사는 현실세계에서는 그들에 의한 불평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취준남1도 자신이 이 사회에서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절대적 권력층과의 경쟁을 가정해보면, 그 가정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은 이러한 권력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공대여2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절대적 권력에 의해 한계 지어진 욕망들은 그들이 미래 생활에 영위하고 싶은 삶의 모습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표 지향적이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목표는 항상 성취가 가능한 것이었으며 미래의 목표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꿈이라고 하기 무색할 만큼 현실적이었다. 공대 학생들은 모두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으며, 고시남¹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 취준남¹도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법한 큰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자신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꿈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취준남¹이 미래를 묘사할 때 ‘드라마에 나오는 상위 1%의 가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돈 어느 정도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미 상위 1%의 가정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태껏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우받고 생활해오며 사회에 대한 믿음도 지니고 있는 청년층마저도 상위 1%의 생활양식을 그저 현실에서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자라오면서 절대적 권력층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아왔으며,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큼의 생활을 보냈으므로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과 경쟁하는 대상들을 범위 지을 때 절대적 권력층을 배제했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들이 미래에 꿈꾸는 생활 역시도 상위 몇 퍼센트의 권력층들이 누리는 것들을 제외한 세상에서 만족할만한 상태이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현실에 적응했으며, 불만은 있을지라도 이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쪽을 택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갑,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대한 불평등에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실속을 차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지니게 된 것 같다. 이는 현실타협형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 경영남²는 불평등한 권력이 주어지는 현실에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비판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면서 생각을 바꿨으며,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공대여²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심하게

학연, 지연에 치우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저항의지보다는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궁리하는 쪽에 중심을 두었다.

이들이 꿈꾸는 작은 욕망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청년층을 양산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유형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들은 딱 중산층 정도의 수준을 비라고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화려한 삶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꿈꾸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수준 내에서 만족을 얻기를 바랐다. 특히나 이 유형에 속한 남성들은 행복한 가정, 안정적인 한 가정의 남편, 화목한 가족의 가장 등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 되기를 원했다. 자신의 가정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 속에서는 어떤 큰 이상이나 포부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욕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중산층의 삶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으며,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중산층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이 최종적으로 중산층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작은 욕망이라고 평가되지만 결코 그들에게 작지 않은 욕망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다. 이들이 이토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고 평가가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산 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모든 사람의 노력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졌으며,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나름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논의의 대상으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노력과 보상을 간과할 수 있다. 노력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인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평가 가능한 시간이나 시험 결과나 스펙 등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을 보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며 보여주기 식의 노력에 취중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미래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쳐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상대의 노력들을 평가한다.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보상이 없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체계가 그들의 논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불평과 불만은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핑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타인의 상황보다는 개인의 삶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노력이다. 이들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배경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이는 분명 자신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으면 자신이 그 누군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확신한다.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에만 평가의 가치를 두는 경향은 타인의 개인적 요소들이나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간과하여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나타나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각 개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진전된다.

다시 말해, 사회에 대한 믿음은 청년의 무한한 꿈을 지지하고, 개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을 믿고는 있지만 청년층의 ‘하면 된다.’는 것은 ‘하면 중산층까지는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사회는 평범한 삶마저도 큰 꿈이 되어버린 곳이다. 그나마 이들이 이러한 사회에 대해 만족과 믿음을 지닐 수 있던 것도 결과위주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들 역시도 이에 익숙해져서 예측 가능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족스런 사회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3) 믿음의 취약성

청년들이 사회를 믿을 때의 믿음은 견고하기보다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그들은 사회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들이 미래 사회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의 믿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취약성은 중산층에서 비롯된 불안감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서, 그리고 보상받지 못하는 노력의 실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으로부터 비롯된다.

(1) 경제적 현상유지 불안감에서 비롯된 중산층 믿음의 취약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유형 내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청년층의 믿음은 자신의 현재 경제적 수준의 유지에 대한 불안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자연남¹은 아버지가 기업에 다니다가 나오시게 되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나서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안타까워했으며, 인문사회여¹도 아버지가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나서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토록 중산층 유지에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중산층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산층이 부모님의 생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상태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에 대한 본질적인 불안함이 존재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성취하게 되었지만, 퇴직이라는 계기로 그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산층이 얼마나 취약한지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은 과연 부모님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현재 상태와 같은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배경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자, 미래의 삶에 하나의 기대로서 존재하는 부담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산층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회 내부에서 타인보다 유리한 경제적 조건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미래 사회도 현재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조건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저해시키는 복지제도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중산층의 견고함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2)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믿음의 취약성

믿음의 또 다른 취약성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이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믿거나,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과 괴리를 느낀 사람은 현실에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사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 유형의 대부분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인식했지만 불평보다는 이를 감수하고 노력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를 좌절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를 사회로 확장시켜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이거나, 좌절의 상황에서도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취가 가능한 사회에 대해 불만족을 가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만족할만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좌절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성취에 대해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후자는 사회가 그 믿음을 형성하게 했다고보다 그들의 개인적인 가정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며, 사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의 믿음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3) 사회 무관심으로 형성된 합리화된 믿음

사회를 믿는 유형 중 실제로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사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어떤 사회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기회의 평등을 말하면서도 기회의 평등이 정확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이런 입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그저 면담의 일부로 답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의해 입장을 표했을 뿐, 현실에서 그들은 사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정책에 대한 입장, 타인에 대한 생각 등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드물며,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는 상당히 좁았다. 따라서 그들이 믿는 사회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 형성된 합리화된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며,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믿음으로 기능한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사회’ 그 자체가 아닌 ‘나’의 연장선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재구성된 자기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의하는 사회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철도남(래퍼)은 사회를 언급할 때 자신이 도전하고 있는 음악시장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직접 겪은 사회에 대해서만 한정 짓고 있었다. 특히나 경영남1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댓글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외에 여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로 졸업하고 난 뒤 사회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사회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내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여태껏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과 관련된 부분만을 사회로 보기 때문에 비록 넓은 사회가 여러 모순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제한된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믿음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취준남1은 자신이 겪은 사회에서는 금수저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사람들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된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쉽게 대가를 얻는다고 해서 불평만 하고 이를 장애물로 여긴다면 길거리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사회에 대해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경영남2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만족은 위치에 따라서 변하며 사회를 따지지 말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모두 사회를 믿는다고보다는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회를 계속 기대하고 있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키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유형은 비록 인식하는 사회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으며 충분히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믿음 자체에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공대여2의 경우에는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면서 좌절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고사남1은 똑같은 노

력을 하더라도 경제적 수준의 차이나 그 외의 부수적인 환경의 차이로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취준남1도 마찬가지로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구조상 문제점들이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모순된 사회에 대한 영역은 차치해두고 정당한 사회의 모습만을 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사회 그 자체의 믿음이라기보다 청년층의 삶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합리화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산층은 그 경제적 수준을 미래에도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함, 일반 청년들은 미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믿음 속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사회를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는 당위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며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작위적으로 형성시킨다. 즉, 사회가 마땅히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기 때문에 사회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도 사회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4) 노력중심의 결과주의 추구로 이어지는 믿음의 영향

사회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노력 강조를 통해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결여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강화시켜 타인을 배제하게 하는 배타성을 지니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중산층으로 하여금 중산층의 재생산 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노력중심의 결과주의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살아오면서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한 세계는 그들에게 사회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사회는 노력하면 보상 받는 정당한 체제라는 믿음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노력을 중시하게 되고, 노력을 함으로써 또 다른 성취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로 결과의 원인이나 근원인 노력에 집중하게 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무엇이든 절대적인 권력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난다. 노력의 유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나치게 노력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강화시켜 타인을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로도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사회에 불평을 하는 사람을 노력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는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배타성은 복지정책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사람¹⁾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존재해야 하며 그들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이고, 모두가 다 불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의 대부분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자신의 기회만을 배가시켜주는 측면에서의 정책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유리한 측면들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로지 자신을 위한 기회의 평등만을 지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실제적으로 타인과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회에 사는 개인은 대부분 평등하며 경제적, 환경적 요건이 불평등하더라도 개인의 노력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보아왔더라도 사회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정당화하는 성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타인을 배제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중산층계층으로 하여금 계층 재생산욕구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현재 중산층이라는 자신의 계층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이 여러 요건들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계층의 청년층 관심

은 주로 미래에도 과연 내가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으로만 남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를 믿음으로써 자신들이 미래에도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정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청년층이 지닌 믿음에도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 없이 중산층의 기반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중산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세워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서도 최소한의 복지만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길 바란다. 비록 이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사회를 믿음으로써 자신이 현재 만족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구조들이 미래에도 계속 잔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의 영향들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공 가능성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사회적 관계들과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에 속한 개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원자화된 개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정당한 사회가 타인에게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며 타인을 배제하게 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중산층의 청년층은 자신이 속한 계층적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강화시켰으며, 이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5)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믿어야만 하는 청년들

사회는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 배경이자 미래의 삶을 펼칠 배경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에게 사회는 그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 대해 믿음을 지닌 청년층은 분명 존재했으며, 그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 큰 만족감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를 믿는 근거는 개인적이고 그 이유 역시 다양하지만 주로 경제적 수준에 만족을 느끼고 자신에게 믿음이 강한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상당부분 현실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가 좌절된 청년들이 현실과 타협하며 애써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믿는다고보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를 믿는다. 따라서 그 믿음은 제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이 사회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미래 사회에서 꿈꾸는 욕망은 작고 평범하다. 그들이 믿는 사회 내에서도 불평등과 권력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자신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사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청년층도 그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계층 유지, 성공 가능성의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현재 삶에서는 사회에 대해 만족을 논하기 보다는 자신이 중점을 두는 현재의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초·중·고등학교를 충실히 다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청년들이다. 그들이 사회에 대해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삶은 중산층의 평범한 삶이다.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게 해주진 않는다. 이들은 이전부터 이를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당연시여기고 있었으며, 사회가 모든 이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들이 꿈꾸는 삶이란 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한정 지으며 충분히 현실에서 성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것들만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믿음의 한계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구조적으로 타인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있고 사회에 대한 만족도 있는 가장 희망적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더 안주하는 경향과 함께 현실 사회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청년층

1) 믿음의 부재 혹은 불신이란?

청년들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에 이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청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고자 한다. 무한경쟁을 조장하고 누구보다 특별한 능력을 보여야 하는 사회, 두각을 나타내며 실패 없이 성공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와 과정으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이하 믿음의 부재를 불신이라고 표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청년들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라는 불신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란 사회로부터 개인의 삶이 얼마나 보장받고 보호받고 있는지에 관련된 믿음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한 만큼에 맞춰서 정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가에 대해 청년들의 불신이 바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회 불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만큼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공이나 실패 여부나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 기회비용 등 다양한 정서적인 부분과 결과 이외의 다양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1) 불신의 두 가지 반응 - 무관심 혹은 불만토로

이런 부분에 대해 불신하는 청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청년들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의 반응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반항적이고 실천적인 반응이 아니라 크게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 인식 정도로 나타난다.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인 취업이라는 항목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현 청년들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나가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시도들은 모두 평가되지 않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기 쉽다. 그런 상황이 청년들의 실천적인 움직임보다는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를 거부하여

그 시각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만 가두고 사회문제나 흐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인식 하지만 어떤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보다는 인식하고 부조리한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는 정도에서 그치는 반응을 갖는 청년층도 있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청년층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이나 희망에 대해 인식이 없고 무관심 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보호 받지 못했던 부분이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는 편이었다. 반면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부조리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하여 인식은 있었으나 그룹의 특성에 따라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이나 미래의 사회에 대하여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그 표현이 좀 더 복합적인 차원으로 나아갔다.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반응으로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고 기대를 하거나 의지하고자 하는 낙관적인 희망이 있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불신하면서 무기력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층도 있었다. 이렇듯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청년들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재화하여 개인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불신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는 불신에 대한 반응과 그런 반응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라는 청년층들의 반응 양상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라는 청년층들의 반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청년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믿음의 유무이다. 청년들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의 양상은 개인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크게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과 개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형으로 나누어 전개하되 유형 안에서 또

달리 해석되는 세부적인 사람들의 유형으로 한 차례 더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볼 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다. 이 세부적인 유형은 불신이 나타나게 되는 요인의 차이로부터 나뉘게 되고 액션의 차이에서 그 기준이 나타나게 된다.

(1) 사회 무관심형

첫 번째 유형은 사회 무관심형이다. 사회 무관심형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사회로부터 보호받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면담 조사 대상 중 미용실 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용실 남과 면담했을 때 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고 사회와 개인을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써 사회의 모습은 나의 삶과 관계없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용실 남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장치나 재정적인 큰 도움이 없어 스스로 그러한 사항들을 감당했고 이 때문에 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개인의 세이프넷(safenet)²을 위해 가능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질문 문항에도 비관적으로 대답하고 그것이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모르고 있고 알 이유가 없다는 대답을 했었다. 본인의 미래 비전이나 전망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사회가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고려는 없었으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하고 듣기에 따라 비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미용실 남의 케이스에서 보면 그는 상위 계층으로의 계층상승 욕구가 컸고 뚜렷한 개인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safenet 형성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족이나 사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에 대해 큰 피해의식이 있거나 그 사항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보호가 없음을 깨달은 것을 통해

² safenet을 최소한의 안전망, 사회 안에서 최소한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이라고 명명하였다.

사회를 낙관적으로 믿지 않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safenet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을 강화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였다. 즉,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강화나 생계유지의 길을 찾는 부분에서 원인 제공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본 사회 무관심형의 불신 요인은 사회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이익이나 보호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애초에 사회로부터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 유형의 청년층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기대라거나 관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유형이 가지는 공통적인 조건을 통해 가능한데, 우선 계층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만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액션으로 취할 뿐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닌 모습이었다. 또한 남들이 보았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어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유토피아적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노력하는 유형이었다. 아울러 이것은 이들이 더 이상 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없는 유형이기에 오히려 더 높이 바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2) 미래 비관형

두 번째 유형은 미래 비관형이다. 미래 비관형의 유형을 구분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 무관심형과는 다르게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성이나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나 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재 사회에 대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불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사회에 대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아는 질문에도 강하게 부정한 점이다.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고 변화하더라도 더 안 좋은 쪽, 즉 한 만큼의 대우가 아니라

사회 자체의 기준으로 보상을 나누어주는 사회 성격이 더 짙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이 유형의 청년들의 불신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어디서 이렇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첫 번째로 미래 비관형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본인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화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작건 크건 인생에서 뭔가에 좌절할 때 그 원인이 사회적 부조리에 의한 경우라는 경험적 사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매우 큰 동시에 여기서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생겼다고 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 부조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청년들의 속한 계층이 비교적 중하층의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일종의 계층적 경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파악하였다.

(3) 미래 희망형

세 번째 유형은 미래 희망형이다. 미래 희망형 유형의 특징은 미래 비관형과 함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청년층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러나 미래 비관형과 비교했을 때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현 사회를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미래 사회는 더 낙관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 희망형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점에서 미래 비관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유형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서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미래 비관형 유형의 사람이 사회 부조리를 직접 경험하고 내화시킨 반면, 미래 희망형 유형의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교육적으로 사회 부조리를 내화했다는 점이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이다. 교육을 통해 지식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얻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부조리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미래 희망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직접적인 부조리를 경험하고 현실에서 느낀 것보다 학력적인 요인이 그들의 사회 불신의 기초가 되는 의식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 희망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면서 나름의 방관자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데 그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에 대한 논의에 불신을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희망을 나타냈는데 그 희망의 근거는 고학력자이자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본인의 위치나 계급적 파급력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실천하거나 현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나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조건적으로 사회적 부조리를 경험할 정도의 사회적 계층이 아니고 나름 행동할 여유가 보장되는 계층에 속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부조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서 분류한 유형 중 가장 유의미하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액션으로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도 추가적으로 가진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경우의 청년층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해보았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점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safenet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본인에 대한 믿음을 생성하면서 개인 나름의 safenet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safenet은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분야에 집착하여 다양성을 늘리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있는 분야 등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즉, 이들의 safenet은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불신하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개인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좌절하지 않고 돌파구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곧 본인 스스로를 믿고 개인 믿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강화의 과정으로 개인이 선택한 분야에서 작은 성취들을 통해 만족감과 믿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위로에 대해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유형의 청년들은 정서적 위로를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뒤에서 서술할 개인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는 유형과는 달리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서적인 위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게 되었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서적인 위로에 의존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safenet을 만드는 데에 더 집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어지는 메커니즘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 실제 질문에서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인 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경우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가 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위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단지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보아서도 정서적인 위로보다는 정량적인 대우에 대한 가치판단이 앞선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 개인을 불신하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또한 불신하는 유형

앞서 개인에 대한 믿음은 있으면서도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를 특징에 따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서술했다. 후반부에서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개인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청년층 유형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 이외의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불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 그 믿음을 토대로 스스로의 safenet을 만들어갔던 전 유형과 다르게 이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으므로 전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개인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의 과정에 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의

특징과 함께 우리 연구에서 폭넓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끝으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청년층 서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개인 불신의 과정

개인을 불신하면서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를 불신하는 청년층들은 대부분 중산층 계층의 자녀 중 만이라는 환경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부모나 가족 등 주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상황을 설정하도록 했고 주변(대부분 가족)의 기대감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개인을 이루는 주된 구성요소가 된 것으로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크거나 작은 것과 상관없이 그 어떠한 시도나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그러한 좌절이 충분히 극복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개인의 불신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이 유형의 많은 응답자가 하고 싶었던 어떠한 것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부분이 부모의 반대나 환경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접어야 하는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것에 대해 시도하고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면 오히려 이들은 또 다른 길을 찾고 거기서 도전을 하고 성취를 작거나 마 이뤄내는 등 개인에 대한 믿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인 부모의 강압으로 인해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것에서 좌절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개인 불신의 유형이 갖는 첫 번째 원인특성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의 개인 불신에 대한 기반은 노력이 아닌 결과중심의 평가경험이라고 파악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가치 판단과 대우를 받지 못했고 노력보다는 결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 작은 실패조차 대우받지 못하고 좌절감이 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았을 때 칭찬을 들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노력에 의한 대우나 위로

는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작게나마 실패의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영향과 성공하지 못하거나 주변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자괴감이나 허무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든 것으로 보였다. 이렇듯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보았을 때 좌절과 더불어 주변에서의 대우가 결과중심의 대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에 대한 노력과 그에 대한 믿음,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보다는 주변의 평가와 대우, 결과 중심적 사고가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해주는 환경이나 넉넉한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유지를 뒷받침해주는 가족의 영향력은 개인에게 절대적이며 그렇기에 그들의 평가가 개인의 구성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지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도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유형의 사람들 특징이 무기력감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무엇에 도전하거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황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무기력감을 보였다. 어디서 이러한 무기력감이 비롯되는 것인지 분석해 본 결과 주변의 지나친 기대감과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지 못하고 안주하거나 불만을 가지면서 순응하는 것과는 달리 이 유형의 사람들은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충분히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자체적인 무기력감과 상승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더욱 힘들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해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주저앉았다기보다 너무 높은 기준치가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주변의 기대와 개인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욱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노력만 하면 어디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논리구조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설정된다. 이 속에서 주변의 기대로 자신의 존재증명을 해나가는 개인으로서는 손에 닿지 않는 까마득

한 기준을 보면서 불가능을 실감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얻기보다는 애초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개인의 노력이 좌절되는 경우 그것이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무능력, 능력의 부재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잠재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곧 주변의 실망을 이끌어내고 그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잃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는 강력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의 과정

이렇듯 형성되는 개인에 대한 불신은 곧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개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은 이 유형의 청년들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주변에서 기댈 수 있는 지지대를 찾게 된다. 내부적으로 개인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 safe net을 만들고 자립하는 전 유형의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이 기댈 곳을 찾는 것은 바로 가족이자 더 나아가 사회인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까지 받아주고 실망하지 않을 안식처를 이들은 찾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지금껏 사회나 주변에서의 반응은 실패했을 때도 정성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결과 중심적 대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은 사회에 대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평가를 부정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 개인에게 사회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이며 정성적인 위로와 격려보다 정량적인 것에 보상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불신에서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 또한 좌절되는 경험이고 그에 따른 충분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개인은 안식처 없이 더 심한 개인적 불신에 접어들게 된다. 즉 순환 고리 속에서 하나의 요소가 되어 개인 불신과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서로 심화시키는 순환관계가 되는 것이다. 요소는 개인불신, 사회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좌절,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개인에 대한 불신을 모두 가지는 유형의 특징

이 유형의 특징은 앞에서 논의한 무기력한 좌절감과 또 다른 특징인 평범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적인 위로를 갈구한다는 점이 이 유형을 아우르는 공통점이다.

좌절감은 무기력과 책임감의 메커니즘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가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족이 주는 기대감에 부응하여 결과에 따른 보상을 얻는 것은 곧 개인의 필요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감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한 경우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였다. 환경적 특성으로 중산층 계급의 맏이나 가족의 희생을 통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들은 가족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스스로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 기대를 충족시킬수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기대감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은 무한대로 높아지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개인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특징인 무기력감의 원인이 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평범함을 바라는 모습은 특히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정을 중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으로 표현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은 현재 일상과 같은 평범함을 개인이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했을 때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은 상층욕구나 권력욕구가 없으며 지금 같은 일상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이러한 ‘평범함’이 결코 평범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다쳐놓은 입지를 똑같이 가지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일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특징이다. 남성 응답자는 현재 속해있는 가족이라는 가정 이외에 개인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았을 때 왜 굳이 ‘가족’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가정은 이들에게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믿을 만한 곳이고 스스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곧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가장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성립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적인 위로를 갈구한다는 점이 공통적인데 이는 위에서 개인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은 없는 유형의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두 유형 모두 사람들로부터 정량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정성적인 위로를 받지 못했으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 그 위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반면, 개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위로를 갈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량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받아온 부분이기도 하고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상응하는 정량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 이들은 찬성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량적인 대우 또한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들은 불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충분한 결과가 아닌데도 그보다 많은 정량적 대우를 받는 경우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러한 부분은 우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정책관련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럼 이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부분일까. 개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유형의 사람들은 결과에 따른 정량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보다 개인의 노력과 정성적인 위로가 없다는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노력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고시에 통과하지 못하여 결과는 없지만 고시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만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가치를 주고 결과가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부분도 생각하여 정성적인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회를 이들은 바라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청년층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유의미성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에 관한 연구와 분석에서 응답자 중 소수지만 확실히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류가 있었다. 개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동시에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불신도 갖는 사례였는데 위에서 다룬 경우는 가족의 기대와 지원으로 인해 한계가 없는 데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아이러니한 케이스였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사회적인 제한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인데 이 응답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빚을 갚고 풍족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본인이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노력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개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좌절하게 되는 케이스였다.

사실 우리 연구에서는 서강 대학교와 서울시 내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찾고 연구를 실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학력자이거나 중하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모든 청년층을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위에서 응답자가 너무 소수여서 분석이 어려웠던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좌절형이 우리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이자 우리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 청년층을 고려했을 때에는 개인 불신에 의한 좌절형에서 충분한 지원으로 인한 아이러니한 좌절형뿐만 아니라 위의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좌절형도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계점과 더불어 우리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은 바로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형 내의 세 가지 세부적 유형 가운데 미래 희망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희망형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사회에 대한 인식,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 여유,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엘리트층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환경적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 미래 비관형이나 세 가지 요인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무관심형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미래 희망형이 확실히 사회 변화를 이끌 재목이고 주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유형이 무기력함이나 좌절, 개인적인 safenet의 관심으로 그치는 것에 비해 잠재력이 있다는 것 자체에 유의미성을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04

청년층의 소비

- 1_관계맺기형 소비
- 2_계층적 소비
- 3_생산적 소비
- 4_억압된 소비

04 | 청년층의 소비

연구 대상자들은 '한 만큼과 대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및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들의 소비문화를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사적인 생활 내에서 청년층들의 꿈과 절망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의 소비를 관계맺기형 소비, 계층적 소비, 생산적 소비, 억압적 소비로 나눌 수 있었다.

1_관계맺기형 소비

1)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우'와 청년층 소비의 연관성

신혼을 중심으로 선택한 우리 연구의 대상들은 앞서 '대우'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량적 대우 없이는 정성적 인정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일부 대상자는 물질적 기반이 열악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량적 대우를 얻는 데에만 힘을 쏟거나, 현실성이 부족할지언정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량적 성취를 추구한다. 이 청년층들이 개인의 일상에서 목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직업과 연관된 스펙처럼 정량적인 요소이다. 이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게 어떤 삶을 미래에 살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이들은 자아탐색, 화목한 가정, 여유, 주변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정성적인 가치들을 내놓는다. 즉, 그러한 정성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량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연구 대상자들은 경제력 없는 정성적 인정 혹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는 대다수가 신혼을 중심으로 선택한 연구 대상의 한계일 수도 있다.

청년들이 정성적 인정과 대우를 바라면서도 정량적 대우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현재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성적 인정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층은 정량적 대우의 부족함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자연스럽게 납득하지만, 정성적 대우의 부족함

은 냉소적, 무기력, 분노를 보인다. 우리 연구에서 청년들이 삶 속에서 정성적 대우를 사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관계맺기형 소비로 드러났다.

2) 관계맺기형 소비의 내용

면담자들에게 소비를 하는 영역 혹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가장 흔한 대답은 ‘사람 만나기’였다. 대다수 대상자는 연인,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여기에서 ‘소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활동의 목적이 소비가 아닌 ‘사람 만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 왜 청년층이 포기하는 것들에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다.

3) 가정을 중시하는 청년들

대부분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관계맺기형 소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대다수 사람 중 관계맺기형 소비를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한 10명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미래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정’을 언급한다. 현재 가정 내의 불화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을 원하기도 하고, 현재의 가정을 롤모델로 미래의 가정을 꿈꾸기도 한다. 즉, 미래의 삶에서 가정,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도 관계 맺기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영어공부, 학점관리, 대외활동 등과 같은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언급한다. 즉, 가정이라는 정성적 가치를 위하여 당연히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미래상이 화목한 가정인 만큼 현재의 삶에서 시간과 돈을 쓰는 많은 부분은 ‘관계’에 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이 과정에서 ‘인맥관리’를 언급한 대상자는 1명뿐으로, 청년층들의 인간관계가 단순한 인맥관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를 하는 영역은

술자리, 음식, 문화생활, 여행, 운동 등으로 다양했으나 이 모든 과정에서 '친한 친구들이랑'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4) 관계맺기형 소비에서 드러나는 청년들의 삶

관계맺기형 소비는 극단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면담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거나 특정한 사람(연인)에게로 모두 집중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제적으로 하층의 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위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대신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유형의 소비를 지속시킨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관계맺기형 소비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이 유형의 소비 및 다른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흔히들 말하는 “돈이 없으면 쓰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벌어서 쓰자”가 청년들의 생각이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정서적 위로와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맺기를 위한 소비를 하다가도 이를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시기가 몇몇 청년들에게는 존재한다. 바로 고시, 약학대학과 같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시간과 돈 모두를 투자해야 하는 관계맺기 식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둔다. 이는 잠시 후 논의할 예정이다.

2_계층적 소비

1) 낙관적 전망을 가진 청년들의 현실 유지에 대한 욕구

연구 대상자들 중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사회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꿈이다. 이러한 꿈은 이들의 소비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계층적 소비란 특정 사회 경제적 계층인 중산층 이상의 대상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소비를 뜻한다. 인터뷰에서는 계층적 소비를 즐기는 대상자들이 6명 정도 존재하였다. 이 중 5명은 중상위 이상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계층 상승 보다는 유지의 욕구가 있었다. 또한 발현되는 양상은 모두 달랐다. 백화점, 호텔 등의 문화 향유, 지적 자본으로서의 인문학 및 문화 예술 관람, 고급 브랜드의 옷, 가방, 신발에 대한 투자 등이 있었다. 중요한 지점은 이들은 적극적인 소비라기보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층 상징적인 소비가 당연하게 된 경우라는 점이다. 흔히 계층적 소비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과시형 소비 혹은 박탈감으로 인한 상징적 소비라기보다 부모가 즐기는 것들을 그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위와 같은 소비 성향에 대하여 구체적 선호가 존재하지만, 이를 특별히 소비라기보다는 당연한 것들로 인식하고 있다.

2) 상승욕구에 의한 계층적 소비

예외적으로 상승욕구가 반영된 인문사회여1도 이미 중산층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부모님의 생활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마지노선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서 더 나은 삶이란 인문사회여1이 가진 계층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영향 아래 소위 고급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배워왔다. 이 대상자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흔히 말하는 고급문화 향유를 즐기거나, 상위 계층의 상징적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여성은 계층에 대한 상승 욕구 때문에,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상자가 하는 계층적 소비는 상장을 사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소비 자체가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이다.

3) 부모의 영향력과 소비

계층적 소비 유형은 중산층 이상의 젊은 층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이들 중 인문사회1, 인문사회여2를 제외하고 4명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에 대하여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이들의 꿈이 좌절된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부모가 원하는 목표와 자신이 원하는 목표 사이에서 도전도 해보기 이전에 부모가 맞춰놓은 진로에 따라 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꿈꿀 나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다른 도전을 할만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진로를 모색할 의지가 없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서 오는 다양한 환경적 이로움이 사실은 부모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갈등하는 이유가 부모임을 알면서도, 이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부모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생활을 벗어날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온 안락한 삶의 경험과 자신이 즐기는 고급 문화의 향유를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부모만큼 여유로운 경제적 생활을 기반으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기에, 이들의 목표는 현재 생활의 유지이고, 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부모가 제안하는 선택지들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을 호소하며 방황하고 있다.

무기력함을 드러내지 않는 인문사회여1도 계층 상승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성에 따라 자기 삶의 목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여성에게 남성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현재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 부모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겉으로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문사회여1은 꿈을 향한 도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변화의 기준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남자에게 있는 셈이다. 특히 남성을 고를 때도 최소한 부모와 같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로서 영위하지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여 있는 계층적 소비를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문사회여2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문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4) 계층적 소비에서 드러나는 현재를 유지하는 기반의 취약성

실제로 계층적 소비가 부모의 영향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그 인력함으로 인해 자신의 목표로 도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만든 틀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애초 미래의 원하는 삶이 현재 삶의 유지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유지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 청년들이 꿈다운 꿈을 찾아 좇든 부모가 제시한 틀 내에서 살아가든 중산층 이상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안락한 삶 속에서 살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부모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좇고 있는 꿈도, 도전 해본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그 좌절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문제점인 이유는 이 청년들이 자신의 환경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들이 가진 ‘부모가 못해준 게 없는 데, 나는’이라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앞서 사회에 대한 불신에 대해 논의할 때 언급되었듯이 사회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

3_생산적 소비

1) 자신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취미 활동

연구 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공대남1, 공대남2는 취업 스펙과 별개로 한 가지 취미를 발전시키면서 이를 위한 소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하는 취미 생활은 공대남1의 경우 트럼펫, 공대남2의 경우 피아노였다. 또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만큼 여유롭지는 않은 경제적 형편에도 오디오와 같은 음악장비에 투지했다. 두 대상자 모두 '성취'한다는 느낌을 중시하였으며, 공대남1은 웨이트를 했었고, 공대남2는 성취하는 느낌이 드는 게임을 한다.

공대남1은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와 개인을 모두 신뢰하였으며, 공대남2는 사회를 신뢰하지 않으나 개인은 신뢰하는 유형이었다. 두 대상자 모두 스스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노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간다. 그들의 취미 생활의 꾸준함과 성취하는 느낌이 드는 취미는 목표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닮아있다.

2) 적극적 취미활동과 생산적 소비

공대남1, 공대남2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적극적 취미 활동이 단순히 휴식을 위한 혹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만을 위한 취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취미는 탈출구로 기능한다. 공대남1의 경우 트럼펫은 '삶의 낙'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이다. 이 두 대상자 모두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하루에 1시간 등으로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취미활동을 한다. 이는 단순히 그 취미활동이 하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력을 유지하게 하는 생산적인 원동력이자,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탈출구이다.

3) 생산적 소비에서 드러나는 청년들의 삶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청년층이 취미생활을 여유로서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계발의 한 방향으로서 취직에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공대남 1, 2는 대상자 중 드물게 적극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시키고 목표를 위한 노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 단순히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취미 활동은 아니다. 이 유형의 소비 패턴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걱정선에서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긴다. 이는 취업을 고려하고 취미활동을 하는 청년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도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여유는 없음을 보여준다.

4_억압된 소비

1)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비의 부재

연구팀은 청년층을 연구하면서, '작은 사치'라고 불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 투자 혹은 소비 그 자체에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면담 대상자 중 소비 자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조금은 과감하지만 도를 넘지 않는 '작은 사치'를 부리는 층은 많지 않았다. 또한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대상자도 자연남¹ 한 명에 그쳤다. 대부분 대상자는 충동적으로 산 물품들을 '소비'의 영역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길을 가다가 계획 없이 쓰게 되는 적은 돈들은 소비로서 의식적으로 면담 내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작은 사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음식, 즉 맛집 찾기와 같은 것도 청년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앞서 논의한 관계의 측면, 즉 함께 먹는 사람들이었다.

2) 특수한 상황과 억압된 소비

우리 연구 대상자 중 소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모두 취업 준비생이거나 고시생들로 소비 이외의 취미, 관계맺기 등을 할 시간적 여유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욕구를 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래 개인적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관계맺기를 위한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들로, 구직을 위한 시험 준비 및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미 및 관계에 대한 욕구를 극단적으로 억제한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본래 소비로부터 만족을 얻지도 않았으며, 시간적 한계 역시 개인의 계획에 따라 엄격하다. 또한 소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오고가 는 길에서 물건을 사는 식이다. 특히 언론고시를 준비 중인 취준남²는 삶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요소라고는 길에서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것뿐이다. 본래는 피아노를 쳤었지만, 더 이상 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취업이나 시험합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극단적인 절약 때문으로 보인다. 즉,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를 위한 소비를 억제하고 있었으며, 대신 억압된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고시남1은 CPA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본래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관계맺기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먹는 데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취준남1 역시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적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으나, 취직 준비가 바빠짐에 따라 현재는 간단한 쇼핑을 할 뿐이다. 이 쇼핑마저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옷 가게, 백화점 등에 들렀을 때만 한다. 고시여2는 면담자 중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야기한 소수의 면담자 중 하나였으며, 친구들과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하지만 쇼핑과 친구들과의 만남도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사라졌다.

3) 억압된 소비에서 드러나는 청년층의 삶

억압된 소비를 하는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청년층들이 취직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해내야 하는 취직이라는 과제가 있는 만큼 다른 욕구들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율적인 욕구 조절로서 단기간에 취업이 해결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시험 준비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전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여1은 부모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부모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짐에 따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 풍족함이 있기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조절하지는 않지만, 과거 사람들과 함께 하던 자리를 더 즐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즉, 취직이라는 관문이 청년층의 삶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가 억압된 소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4) 삶의 탈출구로서 이루어지는 소비 행위

우리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소비는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관계맺기형 소비가 청년층들의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극단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량적 대우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게 정성적 인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계층적 소비는 미디어나 과시적 성향보다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풍족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층의 꿈인 현실 유지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취약성을 가진다. 생산적 소비를 하는 대상자들을 통해 적극적인 취미활동 역시 개인의 생산적 활동의 일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청년층이 욕구를 극단적으로 억압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관계맺기형 소비는 청년층이 바라는 정성적 인정의 대안이기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취미활동이 개인의 삶에서 탈출구 기능을 하는 것과 청년층의 극단적인 욕구 조절은 청년층이 사회에서 취업 및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소비라는 사적 영역에서조차 청년층들은 즐기는 대신 삶의 탈출구로서 혹은 부족한 정성적 인정의 대안으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부모의 영향에 지배받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완전히 억압해 버린다.

05

정당한 사회와 정책

- 1_정당한 사회와 정책의 관련성을 찾는 목적
- 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
- 3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는 유형
- 4_노력이 수반된 선별적 정책 지지

05 | 정당한 사회와 정책

1_정당한 사회와 정책의 관련성을 찾는 목적

이 연구의 주제인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는 기대와 보상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당한 사회의 모습이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 25명 중 23명에게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연구진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정책은 사회가 그 구성원을 대우하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소수자 우대정책은 사회가 어떤 조건에 처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보여준다. 따라서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질문함으로써 청년들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대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여 이 절을 통해 알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소수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구술로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모습을 '기회의 평등'으로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사회구성원들의 동일한 출발선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의 청년들이 특수한 불평등에 대해 배려하는 소수자 우대정책에 어떤 의견을 보일지 알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역차별' 의식 등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했다.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우대정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일반적 경향을 보였지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각 영역의 찬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1) 정당한 사회와 개인

이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계층과 교육수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이러한 변수에 따라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청년들의 정책적 입장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면담 결과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은 의견이 달라도 대다수 청년이 유사한 사회관과 정책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다수 면담자들은 사회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회는 생활세계와 무관하고 실체가 불명확하며, 개인보다 우선하는 추상적인 체제이다. 비유하자면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배경, 혹은 너무나 높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천장과 같다. 청년들의 이러한 사회관은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취업준비에 바빠 신경 쓸 여력이 없다든지, 정책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사회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금수저’, ‘재벌가 아들’, ‘정치인’들이며 이들이 하는 정치는 면담자들의 생활세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살면서 정치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소기업남은 ‘정치가 딱히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없다’고 답한다. 사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면담자들이 삶에서 경험한 사회의 긍정적인 힘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 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운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회가 순기능으로 경험되는 순간은 이에 대해 보상이 돌아올 때뿐이다. 면담자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논리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이 축소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국내 경제위기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보지 못한 청년들은 노력의 결과로서의

변화와 보상을 안겨주는 개인의 힘만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사회가 면담자들의 삶에 와 닿는 경우는 거의 부정적인 힘에 의해서다. 거대한 빈부격차(인문사회여1, 인문사회남1, 공대남2), 계급재생산구조(인문사회남2), 취업난(자연남1, 고시남1, 전문대여, 취준남1, 취준남2), 성별에 따른 차별(공대여1, 공대여2, 인문사회여2, 경영남2, 미용남), 담배값 인상 등 증세(소기업남, 예술여), 부당한 비정규직 고용제도(직장여), 중소기업에 가하는 대기업의 횡포(경영여1, 소기업남), 소속학교에 대한 정치적 압력(예술여), 시 정책에 의한 부모님의 실업(공대남1) 등이 면담자들이 체감하는 사회이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나, 각자의 마음 속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은 체념과 같은 담담한 어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사회란 날 때부터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같은 것으로,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고,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소기업남은 차별을 겪고 분노하여도 명목상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다. 앞으로 받을 불이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의해 봤자 이런 부당한 상황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술여는 '세월호와 메르스 등 들고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바뀌는 게 없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드니까 금방 관심 끊고 무감각해진다.'며 앞으로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에 나선 경험이 있는 면담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과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위 등에 참여했던 인문사회남1은 운동을 해도 변하는 것이 없었다며, 대중의 비판의식 부재, '냄비근성'에 대한 환멸감과 '오천만분의 일'일 뿐인 자신의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평범한 개인이 사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운동을 그만두고 자신은 이제 '누구보다 불의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변하지 않는 사회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타인이라는 '현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인문 사회남2는 우리사회가 능력을 가진 개인이 노력을 하여도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한, 계층유연성이 제로인 사회라고 말한다. ‘개천에 용 난다’는 것은 과거 이야기일 뿐이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돈’ 있는 배경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회를 비판한다. 그리고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이 사회를 탈출, 즉 이민을 꿈꾼다.

이러한 인식에서 ‘현실’에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응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고시남1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고시남1은 취업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모든 일이 개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며 극복할 수 없는 사회조건은 없다고 주장한다.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추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혹은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자들도 있다. ‘현실은 원래 불평등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저소득층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진 소수의 면담자들도 있었으나, 이들의 희망 역시 당장의 변화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낙관적인 견해는 ‘희망을 갖고 고민과 논쟁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나아갈 구석이 있지 않을까’, ‘비관적인 사회이지만 누군가 죽을 만큼 노력하면 뭔가 미미하게나마 바뀔 수 있을 것’과 같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가정형의 낙관에 그쳤다.

사회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은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인식하에서 개인이 사회에 무관심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관심을 가져 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면담자들은 생활세계를 넘어서는 사회에 대하여는 관심과 의견을 가져야 할 당위를 느끼지 못한다. 사회는 순응해야 할 대상이며,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 참여는 무력감만을 가져다준다. 희망을 갖고 사회참여 노력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노력은 자신의 생계가 먼저 해결된 뒤의 일이다.

2) 정책과 개인

사회가 불변의 배경과 같은 것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관심의 초점은 개인에 맞춰진다. 중요한 과제는 개인의 과제요, 문제의 해결은 개인 스스로가 할 일이다. 면담자 대부분은 사회구조보다 개인, 개인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다. 대다수 면담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과 그에 따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개인 삶의 방향키와 책임이 개인 자신에게 있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이다.

(1) 보호 정책의 시작은 기회 평등의 보장에서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는 적극적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은 소수 면담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개인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숙자에게 집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저소득층 성인에게는 현금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보호는 여성의 자생력을 낮추며, 여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앞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개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면담자들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능력주의 사회를 바란다. 이들이 말하는 정당한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개인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이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시작은 개인들이 선 서로 다른 출발선을 맞춰 주는 일이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복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출발선을 보장하는 의미로 주어져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으니 출발선 이후의 일은 그들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된다.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을 빼앗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출발선 조정은 뒤쳐진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자신보다 출발선에 앞서 있는 경제적 부유층에 대한 정책인 직접세 징수 강화, 세금의 차등 부과 등을 언급한 면담자는 없었다. 이는 면담자들이 부를 한 만큼 대우받은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회의 평등 주장이 일종의 제한선 아래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

청년들을 선별적 복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고, 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룹 중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중 노력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장애인과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장애인과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한 만큼과 관계없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발생하고, 노력으로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영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취준남1)’에 ‘장애인을 위한 것은 당연하다(공대여1, 공대남2, 취준남2)’고 응답자들은 말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인문사회남1, 취준남2)’는 응답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보이기도 했다.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에는 두 응답자(고시남1, 취준남1)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이는 어린이가 약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사리분별이 어려운 어린이가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인문사회남2)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반대한 응답자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간 사례를 들어 개인이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를 들어 모든 저소득층에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저소득층 중 극빈층 성인에 대한 지원에는 네 응답자(공대남1, 고시남1, 취준남1, 인문사회남2)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여기서 극빈층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당장의 생존이 어려운 최하위 계층을 뜻한다. 최소한의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극단적인 빈곤은 강력한 구조적 제약이라는 인식이 찬성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반대한 응답자들은 극빈이 장애와 달리 노동으로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어린이, 극빈자 지원에는 대다수 면담자가 찬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 속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반, 여성, 다문화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3) 사회적 약자로 인식해야만 정책 찬성

면담자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할 때 해당 그룹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해당 그룹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들이 놓인 구조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우대정책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의 인식이 여성 고용 지원정책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소기업남, 예술여, 인문사회남2). 반면 반대한 응답자들에게 해당 그룹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재했다. 정책 수혜 대상자를 '나와 다르지 않은 특별히 어려울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정책적 수혜는 노력하지 않는 자가 받는, 혹은 한 만큼보다 더 받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정책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보통사람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한정된 세금을 빼앗는 짓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일반, 여성, 다문화 지원에 대한 찬반의 양상은 현재 사회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능력주의 사회, 즉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로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의 사회관과 정책적 입장이 나뉘는 양상을 서술하겠다.

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

이 유형의 청년들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고 믿는다. 비물질적 가치에까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가장 체화된 유형이었다.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회는 이들에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을 준다. 이들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정책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조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의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기회의 평등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능력주의 시스템하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성취할 수 있다. 즉 개인이 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1) 장애인정책은 적극적 찬성, 저소득정책은 선별적 찬성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어 있다고 여긴다. 공대여1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능력주의 사회라고도 본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 유형의 면담자들은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에 반대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고, 저소득층이 그러한 환경에 처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고(고시남1), 부유층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들이 믿는,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는 열려 있고, 노력하면 그 결과가 돌아오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는 개인의 책임이다(공대남1). 그러므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빈부격차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복지정책은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여 물질적 부를 성취한 자들에게는 불공정한 처사로 비친다.

물론 이들도 현실에는 기회의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과 처지에 따

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들은 저마다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신체적 불구나 극빈 수준의 제약이 아니고서야 국가가 개입하여 출발선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시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불리한 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특별히 불리한 건 없기(고시남1)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남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를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제도적 도움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공대남1),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자신의 불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시남1)고 본다. '장애인이 아닌 한 다 극복할 여지가 있다(취준남1). 지원을 하더라도 그건 도태를 막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즉, 학생으로 따지자면 학교에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의 문제일 뿐,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격차는 정책적으로 어찌할 일이 아닌(공대여1) 것이다. 기반은 마련해줘야 하지만 그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공대여2). 왜냐하면 그 이후는 개인이 노력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을 통한 환경의 극복을 강조하는 면담자는 대부분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면담자 유형 중 자수성가형에 속했다. 자신의 경험이 불리한 환경적 조건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극복해낸 사례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노력을 다른 면담자들만큼 강조하지 않고 불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면담자들도 존재했다. 면담자 유형 중 현실유지형의 면담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당위를 가진 지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푼다는 도의적, 시혜적 차원에 가까웠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무상복지에는 반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과 관련된 여성정책만 찬성

여성 우대정책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신체적 특수성과 관련된 정책에는 찬성하였지만,

이 외의 여성 보호정책에는 반대하였다. 신체적 요건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보호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여성이 사회의 반인데 특별히 약자라곤 볼 수 없다는 언급(고시남1), 요즘 여성 취업률이 올랐으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취준남1), 성별의 차이일 뿐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왜 우대정책이 필요하냐는 의견(경영남2)은 여타 응답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유리천장 등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불리한 입장을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단순한 성별 차이에 불과하다는 의식을 가지는 남성들에게, 여성우대정책은 한 만큼보다 더 우대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않는 분배이다.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르면 여성정책은 남성을 역차별하는 정책이 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만,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특성상 남자가 조직에서 일을 더 잘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맡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도 존재했다(취준남1).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고용 불평등과 임금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인위적인 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리천장의 존재를 인지하여,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인지한 차별을 시정하는 소극적 차원에 미쳤다(자연남1, 인문사회여1, 공대여2). 정책이 해야 할 일은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이며 이후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 전용시설과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모든 면담자가 반대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를 반대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여성이라는 그룹이 사회에서 약자로 보여지는 것에 거부감을 보였고, 성취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복지는 권리를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일관된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3)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국민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 팽배로 반대
다문화 지원 및 우대는 다수 면담자가 반대하였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일반 한국 가정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자연남1, 래퍼남, 고시여). 이는 위에서 여성 지원에 반대한 것과 유사하다. 사회적 약자로의 인식 여부가 정책

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을 단순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책에 관한 관심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찬성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는, 인종주의 타개를 위한 소극적 수준에 그쳤다. 최준남¹⁾은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타국에 진출한 재외국민이 타국의 정착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면, 다문화정책의 수혜자에 대해 계층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성소수자 정책 -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정책제정 불필요

성소수자 우대는 자신의 편견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면담자가 명목상으로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동성연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준의 소극적 찬성이었다. 성소수자 문제에 정책이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성소수자는 성적 기호가 다른 사람일 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5)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필요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면담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면담자들의 복지 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지는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복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유한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복지의 수혜자는 복지를 당연한 권리로서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수반해야만 한다.

배려 정책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는 있지만, 당연한 권리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배려 대상자도 노력을 해야 하며, 보호를 '당연히 배려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공대여2).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의상 도움이 아닌 법률상 복지 정책들은 타인의 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공대남1).

이들이 지지하는 정책의 내용은 크게 보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별적 복지로 수렴되었다. 여기에서 선별적 복지의 대상은 ‘정말 어려운 사람’, 즉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제약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면담자가 해당 소수자가 놓여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해당 소수자가 놓인 특수한 어려움, 이를테면 신체적 제약, 기회의 제한, 고용불평등, 문화적응의 어려움 등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배려에도 찬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그룹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재한 경우, 우대정책의 혜택은 개인이 한 것보다 더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경우 복지는 공정한 시스템에 어긋나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 그 외의 사람들에게 대한 역차별로까지 인식되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는 유형에 비해 이 유형은 선별적 복지의 대상자인 ‘정말 어려운 사람’의 범주의 폭이 좁고 제한적이었다. 저소득층 일반,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모두 전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소수자 우대 정책의 근거인 그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불리함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소수자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심 부족은 모든 것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면담자들은 어떻게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소득층, 여성, 다문화가정이 특수한 차별과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정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학력 간 상관관계, 여성이 겪는 유리천장과 고용불평등 문제,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화적 소통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면담자 다수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은 환경에 속했다. 이 유형의 면담자 대부분은 이공계 아니면 상경계 전공을 갖고 있었다. 수학 과정 내에서 특별히 사회문제나 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해당 정보들을 접하기 어렵다. 중산층 이상으로 이공계열의 전공을 가진 면담자는 현실의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불평등을 접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를 벗어난 사회구조가 추상적으로 공정하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현실을 전체사회의 모습으로 확장하는 자기중심적 경향도 나타난다. 자수성가형에 해당하는 면담자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했다. 이들은 개인이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로서 불평등을 경험했으나, 개인의 능력으로 현재 보상을 받은 자신의 사례가 개인이 노력하면 한 만큼 사회에서 대우받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주장의 근거로 확장된다.

또한 이들은 현실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사회에 대한 믿음은 소위 '금수저'로 표현되는 특권계층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타고난 조건의 차이를 운의 문제로 합리화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 불리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말 뒤에는 '더 유리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라는 말이 단서로 붙는다. 이는 더 유리한 사람을 배제한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유리한 사람과의 차이를 좁혀달라고 사회에 요구하지 않는다. 타고난 차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차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다.

대신 이들은 자신보다 앞선 위치에 존재하는 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노력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제이고, 모든 행동의 당위성을 갖는다. 자신이 행한 노력에 의해 환경이 극복되고, 노력이 보상도 받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노력은 자기 자신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를 종용하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들에게는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3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는 유형

이 유형의 면담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담자들의 현실인식은 직·간접적 불평등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삶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또는 타인의 사례나 통계적 지식과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평등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보상시스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면담자들이 불평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면담자들은 소수자 우대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면담자들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인 불평등을 경험한 면담자들은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책의 불평등을 시정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겪지 않은 문제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야에는 의견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경제적 층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산층에 속하는 면담자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이상적인 사회관에 따라 의식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더 구조적인 전체사회적인 맥락에서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근거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한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위적인 차원에 가까웠다.

중하층의 경우 소수자 정책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들이 처음 사회불평등을 인식한 경우는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정책보다도 저소득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입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층위의 응답자들보다 정책에 관한 정보력이 좋았다.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때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하층은 정책에 관심도가 가장 떨어졌다. 다른 응답자들이 의식적으로나마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현했다면 하층의 응답자는 '관심이 없어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의 경제적 요건이 삶의 질과 관련이 된다면 그에게는 생존이다. 생존이라는 급박한 현실에서 사회 정책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저소득 정책 적극적 찬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저소득층의 빈곤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지하는 저소득층 정책도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극빈'층에 한정되는 선별적 복지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유형과 정책적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보았던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적하였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아닌 계층이 복지 수혜를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들이 극빈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고 있으며 이를 막을 필터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이 유형에서도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특별한 조건에 속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응답자들은 구조적 빈곤이 국가의 문제이며 이를 시정하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당위를 근거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이러한 권리의식이 없는 청년층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2) 여성정책 적극 찬성과 신체적 특수성 관련 정책에만 한정으로 의견 분리

여성정책은 적극 찬성하는 경우와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책 이외에는 우대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선별적 시행을 주장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응답자들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응답자들보다 여성이 사회 내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이 겪는 고용불평, 유리천장,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지한 지원 내용은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막고 표면적인 차별을 시정하는 소극적 차원이 주였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정책에서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알선의 필요성에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구조적인 불평등의 해결보다는 노력하는 개인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유형의 정책적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성우대정책의 존재가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의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용남은 자신이 겪은 2년의 병역기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하며 남성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 반대로 이어졌다. 인문사회남2도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성 일반병이 아닌 여성장교만의 존재가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장교의 존재 자체가 여성도 군사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 다문화정책의 관심부족과 자국민의 어려움 해결이 우선

다문화 정책은 많은 응답자가 지원에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유형은 두 갈래로 나뉜다.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보다 한국인 지원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자국민 선지원을 지지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경제적 소득분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불리한 입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고시여2는 다문화정책을 반대하지만 이유

는 딱히 없다고 응답했고, 인문사회여3은 우대의 이유를 모르겠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소득분위로 중하층에 속하는 면담자들은 자국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수혜 몫이나, 일자리를 빼앗는 악탈하는 자로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타자화하여 인식한다. 다문화 '퍼주기'라는 용어의 사용이나 한국인이 '피해를 본다'는 언급에서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다문화를 찬성하면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우려하기도 한다. 외국인 범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우려한다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가 한국에서 노동을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식을 반영한다. 한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다문화 정책에 찬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들도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언급하는 것이고, 백인 전문직 노동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문화정책을 동남아 우대정책으로 인식하고 찬성하더라도 시혜적 입장을 띠는 청년들의 정책적 입장에서 편향된 다문화 관점이 우려되었다.

4) 성소수자의 문제는 국가의 적극적 제재 반대

면담자들은 국가의 동성혼 금지 등 성적 기호에 대한 국가 제재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치에는 반대하였다. 성소수자는 성적 기호가 다를 뿐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기반이 된 듯하다.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는 면담자들과 같았다.

5) 기회의 평등과 선별적 지원을 추구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믿지 않는 면담자들은 믿는 면담자들과 소수자 우대정책 전

반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지지하는 정책의 내용 역시 기회의 평등 제 공과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이 바라는 정당한 사회의 모습도 합리적인 개인이 ‘한 만큼 대우받는다’ 사회인 것이다. 다만 이들은 현실의 불평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타자에 대한 더 넓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위한 지원 범위의 폭이 믿는 유형의 면담자들보다 넓었다. 하지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평등에 대한 지원 반대는 사회를 믿는 유형과 유사했다.

물론 모든 소수자 우대정책에 찬성하며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한 소수의 면담자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사회가 개인의 삶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하며, 이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 유형의 면담자들이 인문사회계 전공으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세계를 넘어서는 전체사회의 구조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나 복지 사각지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활에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면담자가 자신이 삶에서 직접 겪은 불평등에 대한 정책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음에도, 정책이 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고 시정된 정책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부조리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사회가 돌보아주지 않는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개인적인 삶에 몰입한 나머지 사회나 정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부당한 사회에 대한 이들의 대응은 불평을 멈추고 사회에 순응하거나, 개인적인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사회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책적 목소리를 내려는 소수의 면담자가 존재하였으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또한 사회참여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반 마련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덧붙였다.

4_노력이 수반된 선별적 정책 지지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은 정책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났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은 입을 모아 기회의 평등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노력으로 조건을 극복 가능한 경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지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노력을 수반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들이대는 이러한 대우의 잣대는 청년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많은 청년은 사회가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믿음 하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현재 자신이 처한 조건은 정당하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자 했다. 만일 내가 처한 조건이 정당하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에게 내가 받지 않는 지원이 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자 나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러한 믿음 체계에서 복지는 오직 자신보다 명백히 어려워 보이는 타자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응답자가 지원에 동의한 장애인도 그 예이다. 반면 수혜자의 조건이 자신의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할 때 청년들은 우대정책에 가장 큰 반발심을 드러냈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상자가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소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즉 나와 다른 처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면담자가 지지하는 지원의 범위도 달라졌다. 사회적 약자의 조건에 대한 인식 부재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 반대로 이어진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건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이러한 입장이 소수자의 어려움을 지우고, 약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흐름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06

**결론 : 청년들의 꿈, 좌절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

06 | 결론 : 청년들의 꿈, 좌절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

우리 연구는 현재 서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꿈꾸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인 청년들은 초기 연구(pilot survey)의 결과와 달리 다수의 청년이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믿음이 없는 청년들도 다수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들 연구 대상 청년들을 세 범주로 유형화한 것은 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범주에 속하는 청년들은 각기 다른 기대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포세대, 오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청년층의 대표적 이미지와 상당히 달랐다.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들 청년들은 비슷했다. 우리가 연구한 청년 중에서 꿈다운 꿈을 꾸는 청년층은 없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도 없었다. 이들 청년층은 너무도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한계는 각 청년이 속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꿈과 믿음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제한하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가 부과한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있었다.

우리 연구 대상에서 사회에 대하여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지닌 청년층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볼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는 바탕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 청년은 부모의 지원 아래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층에 속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생활세계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더 나아지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유지하는 데 일차적 관심이 있었다. 현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 가능한 조건 속에 한계 짓고, 그 이상을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온 자수성가형 청년층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노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뿐, 사회의 보상에 대한 한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삶으로 명확해 보였다. 끝으로 현실 타협적인 대상자들은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전망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긍정적 태도였다. 즉, 낙관적 전망을 가진 청년층의 믿음은 한계 내에서의 최고의 성공을 노리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즉 불안감과 믿음이 교차되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층에서도 꿈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청년은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으로의 이주 또는 다른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때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청년 중 여러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가장 강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청년층은 좌절을 강하게 느끼는 청년들이다. 특히 무한한 노력과 성취에 대한 전망을 가진 청년은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진 청년층이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달리, 노력과 성취에 대한 한계를 믿지 않고, 넘어서려고 할 때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그 믿음과 달리 개인적으로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을 야기하는 자기 경험에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진 층은 정당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창의적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층은 무기력하거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가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화의 잠재성은 사회에 대한 기대를 버린 층에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층이 그어놓은 한계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불안감은 없어 보인다.

청년층에게 ‘자신의 생활범위를 벗어난 사회’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연구과정에서 제기했다. 꿈을 조심스럽게 또는 자신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단계에서 꾸는 청년들에게 ‘사회’란 그저 주어진 것으로 보였다. 우리 연구 대상자들은 사회를 단지 배경으로만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연구 대상 청년층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낮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의 관념도 없을뿐더러 최저 생계 이상의 무언가를 사회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연구대상 청년층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음과 무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대다수가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었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배경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도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를 구분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은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타자로서 상대를 배제시켜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이 된다. 때문에 청년층의 소수자 정책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반대로 이어진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것은 '왜 청년층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진 층은 국가가 생계만 가능하게 해준다면 경쟁 사회 내에서 낙오는 당연한 사회의 규칙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나머지 청년층 역시 경쟁에서의 낙오가 두렵고, 어쩔 수 없으나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신도 노력과 성과가 부족해서 낙오한다면 어쩔 수 없으며 그렇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청년층은 이미 낙오를 변하지 않는 사회 내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독특하게도 청년들이 경쟁과 낙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노력과 성과가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모순적으로 청년층은 노력과 성과를 분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성과로만 평가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 보였다. 마치 수능시험 식의 '한 만큼 대우받는' 보상체계를 받아들이듯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배경과 같은 사회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일부 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환멸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회의적이었다. 즉,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경쟁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삶을 각개격파하면서 자

신 영역 내의 내부 집단끼리의 사회 교류, 소비생활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유지시켜 가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청년층 간의 유대감은 취약하다. 청년들은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각기 다른 한계를 가지고 각기 다른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 무기력해지거나 노력하고 있다. 소비와 문화의 영역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생활 생계가 다른 집단끼리의 교류가 부족하기에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꿈이 없다. 연대에 필수적인 미래에 대한 공통적인 꿈이 없으니 연대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문화를 소비하고 있기에 편할 뿐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각개격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막상 평범하고 일반적인 작은 욕망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작은 평범함을 성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막연한 희망으로만 존재한다. 미래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또한 청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 미래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망이 청년층의 합의된 연대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07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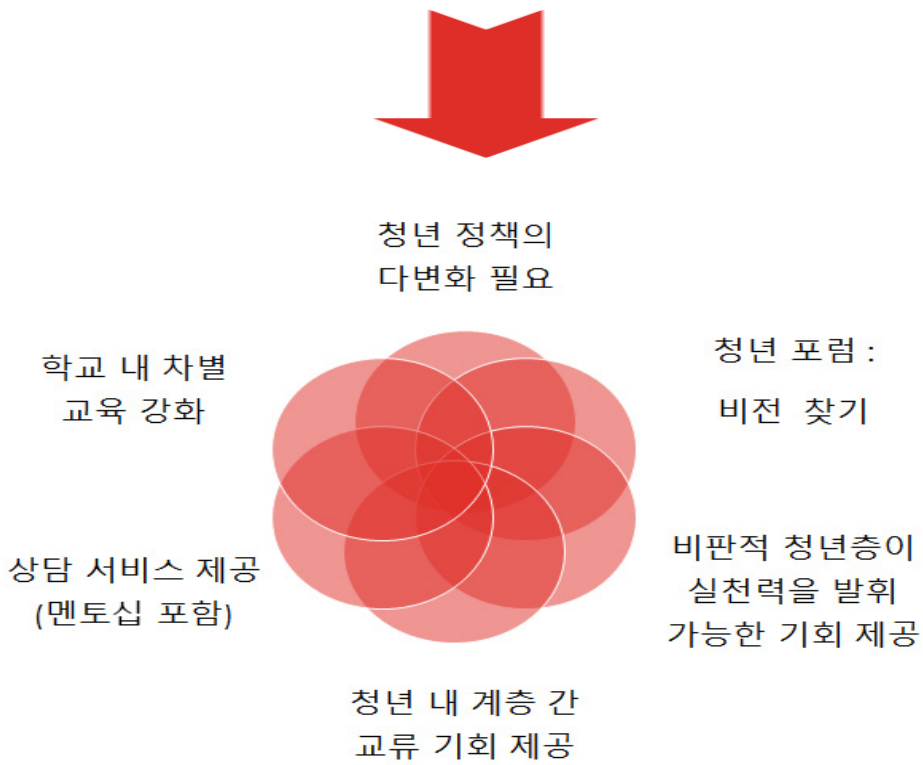
- 1_ 자아탐구 지원을 담당할 전문적 · 종합적인 공간의 구축
- 2_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 마련
- 3_ 감성에 호소하는 소수자 정책 홍보방법의 개편
- 4_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할 공적 채널의 확대

07 | 정책 제안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노력을 통해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혹은 사회의 높은 기대에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의욕을 잃고 부유하기도 했다. 정책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났듯이 청년들은 노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력에 대한 집착, 타인에게의 노력 강요는 미래 불안감이라는 기제에 의해 작동한다. 청년들은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개인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경쟁에 포섭되어야만 하는 자신을 노력으로 채찍질한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타인을 배제하기도 한다.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미래였다. 고용의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은 일자리 자체의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³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고려대생이 뽑은 최악의 청년일자리 정책 중 1, 2위로 꼽혔다. 단기간, 저임금 고용인 인턴제는 청년층이 바라는 장기적이고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정페이⁴를 강요하는 인턴제는 청년세대에 대한 착취, ‘금수저’ 청년의 경력쌓기 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들은 당장의 취업률부터 높이는 고용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반영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요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문제에 가려져 있는 청년층의 다양한 고민을 조명하고 다원화된 청년집단 각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³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2157 신문고 뉴스 2015.09.04.



계층 간, 청년 내, 세대 간
대화 공간 제공

[그림 7-1] 정책 제언

1_자아탐구 지원을 담당할 전문적 · 종합적인 공간의 구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멘토십 서비스와 체험캠프는 홍보부족으로 서비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나 1회성 행사의 성격을 띤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멘토십 서비스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인터넷 배너 광고비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문제시되고, 관련 사이트 안에서의 홍보는 관심을 가지고 사이트에 방문한 자에 한하게 된다. 청년들이 청년문제에 관련한 정책과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마련은 청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후죽순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_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 마련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을 제안한다.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현재 청년층은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입장, 취미와 관심사 등에 따라 다층적인 성격을 띤다. 층으로 나뉜 청년들은 서로 교류하는 일 없이 자신과 다른 층을 타자화하며 배척한다. 이러한 모습은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과 차이를 보이는 층을 비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각 층의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장의 부재가 청년들 간 간극을 넓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은 자기 생활세계의 틀을 벗어난 사회 이면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과 다른 생활 세계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청년의 자기 생활 중심적 경향 때문이다. 자신의 일상 속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소수자 그룹, 저소득층,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인식의 부재로 이어진다. 인식의 부재는 소수자를 '무임승차자'로, 그들을 위한 배려 정책은 예산낭비가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소수자 그룹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는 무엇보다도 청년이 소수자 그룹이 겪는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층의 구성원을 한 그룹으로 설정해 각 주제

발제자를 발탁하고, 발제자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하거나, 발제자가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재능기부), 함께 해보는(체육, 음악 등)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3_감성에 호소하는 소수자 정책 홍보방법의 개편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청년 응답자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현재의 정책홍보에 심리적으로 반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감성자극 차원을 넘어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있고,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통계적 자료 등을 제시해 시민이 소수자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배려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차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많은 청년은 자신들이 기존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에 반발하면서도 이를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자신과 다른 처지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의식도 보였다. 차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교육을 초중고 필수과정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진행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_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할 공적 채널의 확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할 공적 채널의 확대를 제안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청년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느끼고 자기 나름의 정책적 의견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적인장에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나 무관심으로 돌아선 청년들도 존재한다. 청년들의 의식 전환 원인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그들이 낸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여기고 포기해버리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발언할 수 있는 ‘신문고’와 같은 공적 채널의 확대와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 합당한 포상과 결과 홍보를 하여 청년들이 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청년 간, 세대 간, 계층 간 대화의 장이 될 공간의 구축을 제안하는 바이다. 위의 목적을 수행할 공간의 장을 통해 청년들이 1)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2)다양한 구성원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전체 사회의 조화를 이끌어 내며, 3)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청년 정책에 기여하여 자신의 비전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사과 외, 2010, 「20대 얘기, 들어는 봤어?」, 창작과 비평
- 김현미 외,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김현실 · 정영미, 2014,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 영향 요인”, 「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6, P.253
- 문옥표(역), 2009, 「문화의 해석」, 서울(Clifford Geertz, 2000,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Books)
- 사회과학협의회 편, 1980, 「사회과학방법론」, 민음사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PP.387-416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오찬오,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 오혜진, 2013,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문학연구」, 38, PP.463-488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기형, 2011,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5, PP.269-297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문화과학사
- 이용숙 외, 2012, 「문화현장연구」, 일조각
- 조용(역),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서울(Richard Sennett, 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Janklow&Nesbit Associates)
-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인간연구」, 28, PP.253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2157 신문고 뉴스.

작은연구 좋은서울 15-02

서울 시민의 꿈과 삶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0월 9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